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이병찬
편집주간 이상룡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본부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O/T 411호
Tel. (051)245-7551~3 Fax. (051)245-7550

제작 사인텔 Tel. (051)245-2337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교복 대신에 전투복을 입고 전선에 뛰어든 호국영웅들의 이름을 새긴 명비가 모교 '성찰의 집'을 바라보며 세워졌다. 참전동문들과 이병찬 본부회장, 문규철 재경부회장 등이 명비를 제막하고 있다.

호국용마 영웅들이시여, 모교의 영광으로 영원하소서!

‘용마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 ‘성찰의 집’ 더불어 호국·보훈 도량으로 군림 국가보훈처, “숭고한 희생정신 영원히 기억하는 공간” 부산지역 14개 참전고교 중 최초 이병찬 회장,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널리 선양할 것” 배중현(7회) 동문, 영예의 공로패

나라를 보위하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한 용마의 역사와 전통을 다시 한 번 내외에 과시하고 천명하는 엄숙한 자리였다.

용마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이 9월27일 오후 2시 모교 '성찰의 집' 하단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제막식에는 서울 등지에서 노구를 이끌고 모교를 방문한 참전 원로동문 30명이 참석한 영광스러운 명비 제막식을 더욱 빛냈다.

제막식을 진행한 모교 김기련 교감은 “경남고 학적부, 동창회 제보 자료를 국가보훈처 자료와 대사하여 군인, 학도병 등으로 참전한 424명의 경남중고 출신 참전 유공자를 명비에 새기게 되었다”면서 “명각된 424명 중, 학도병으로 참전하신 분은 338명, 졸업 후 참전하신 분은 86명이며, 전사자는 33명”이라고 보고했다.

이병찬 동창회장은 “우리 선배님들은 용감하게 전선에 뛰어들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함으로써 후

배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조국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했다”라고 명비 건립의 취지를 정의했다.

“자랑스런 경고인 육성의 밑거름될 것”

특히, 이병찬 회장은 “우리 동창회는 2013년, 순국동문과 참전동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성찰의 집’을 조성하였다”고 전제하면서 “이 ‘성찰의 집’과 아울러 호국명비가 세워짐으로써 호국영웅의 추모공간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서강태 교장은 “후배 재학생들이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모교에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며 참전동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명비가 건립되었다”고 밝히고 “명비 제막식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잊혀졌던 숭고한 애국정신이 우리 경남고에서 오롯이 되살아나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드높일 자랑스런 경고인 육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홍범 부산지방보훈청장은 “용마호국영웅 명비는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후학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고자 건립했다”고 밝히고 “이병찬 회장과 서강태 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홍범 청장은 “이곳에 세워진 참전영웅 명비는 호국정신의 표상”이라고 찬양하면서 “앞으로 경남고 학생들이 선배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호국정신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학생 대표, “선배님 존경합니다!”

재학생을 대표한 김용민 학생회 부회장은 참전 선배들에게 올리는 “감사 편지”를 통해 “국가의 존엄성과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목숨마저 아끼지 않으신 선배님들을 존경한다”고 칭송하고 “앞으로 명비 앞을 지날 때마다 선배님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부회장은 “저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값진 희생의 대가임을 명심하겠다”면서 “선배님들이 만들어 주신 지금의 세상을, 저희 또한, 더 나은 곳으로 가꾸어 후배들에게 물려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제막식에서 이병찬 회장은 “참전동문 인적 사항을 찾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완벽한 내용이 담긴 명비를 건립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며 배중현 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병찬 회장은 부산지방보훈청 이순희 팀장에게는 감사패를 전했다.

부산지방보훈청, 경남고등학교,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가 건립한 호국영웅 명비는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소중한 생명과 젊음을 바치신 경남중고등학교 출신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후학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고자 건립하였습니다”라고 건립취지를 새겼다. 건립비 4천만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였다.<관련기사 2,3,4면>

먼저 가신 전우들 되뇌며 상념에 잠긴 노병들

참전동문 30명 모교 방문 ... 아흔살 전후 영웅들, 교가 부르며 눈시울 붉혀 후배 감사편지에 박수, 눈물 뒤엉켜 ...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바칠 각오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노병 30명이 어려운 길음으로 모교를 방문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생존 동문은 100명이다.

‘용마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는, 명비에 새긴 대로, 국가보훈처가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세워졌다. 더 나아가, 한반도가 다시 엄혹한 대결 국면에 내몰리는 작금의 국제 정세에 비추면, 용마공동체를 넘어 국민 일반의 안보 의식에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이날 제막식의 진면목이자 주인공은 단연코 30명의 참전 원로동문들이었다. 동족상잔의 참극을 온몸으로 헤쳐 온 참전동문들은 감회와 회한, 자부심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아련하게 멀어져 간 하이틴 시절의 기억을 더듬는 듯하여 후배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을 대리한 오승현 부교육감과 박극제 서구청장, 이만수 참전유공자회 부산지부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문규철 재경동창회 수석부회장과 남진현 자문위원장, 박성철 부회장을 위시한 본부 부회장단, 그리고 류장근 모교 운영위원장, 이경숙 학부모회장 등도 참석해 기념비적인 명비 제막을 축하했다.

“Old Soldiers never die!”

생존하는 참전동문 100명 가운데 이날 참석한 동문은 신정택, 이만규, 정규일(이상 3회) 박석만, 윤연도, 장수호, 최기식(이상 4회) 김은규, 문운정, 백승주, 유병한, 임외택(이상 5회) 김두영, 김상엽, 김윤용(가족 참석), 김종복, 박우제, 박용정, 박종근, 변영수, 오영은, 이길상, 이현덕, 조창제, 최병수, 최병택, 허남기(이상 6회) 김광욱, 김종구, 배중현(이상 7회) 동문이다.

졸수(卒壽) 전후의 노구를 이끌고 모교를



제막식이 끝난 뒤 참전동문들이 명비에 새겨진 이름들을 살펴보며 먼저 가신 동문들을 추모했다.



호국영웅명비는 부산지방보훈청과 모교, 동창회가 공동으로 건립했다. 축사를 하는 이병찬 동창회장과 전홍범 부산지방보훈청장, 서강태 모교 교장(사진 왼쪽으로부터).

찾은 노병들은 동문 전우들과 반갑게 상봉하고 재학생들의 영접을 받았다. 일부 원로들은 영예의 훈장을 패용하고 참석해 이채를 띄웠으며, 모자를 쓴 동문들 가운데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수로 해 전장을 누비던 젊은 날의 기백과 결의를 엿보게 했다.

이병찬 회장과 전홍범 부산지방보훈청장, 서강태 교장,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과 박극제 서구청장은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 참전동문들의 헌신적 호국충정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로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전홍범 청장은 9월 말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가 도착 직후 곧

장 부산시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네덜란드 전몰장병 묘역을 참배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참전동문들을 일어서게 한 뒤, 내빈들에게 기립박수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재학생을 대표해서 김용민 학생회 부회장이 헌정한 ‘감사편지’는 감격 속에 진행된 이날 제막식의 극적 효과를 여지없이 발휘했다.

자신이 72회라고 소개한 김용민 부회장은 “저와 친구들의 철없는 모습을 보면, 비슷한 나이의 까까머리 소년이었을 선배들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결심이 얼마나 용감하고 거룩했는지 가슴 깊이 다가

옵니다”라고 토로하고 “저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값진 희생의 대가임을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자 원로동문들은 박수갈채로 화답, 격려했다.

또한, 제막식 마지막 순서로 53사단 취주악대 반주에 맞춰 교가를 제창할 때, 감회어린 목소리로 교가를 부르는 노병들의 눈자위는 어느새 붉고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경남고 랜드마크로 도약하길 소망해”

용마호국영웅 명비가 자리잡은 곳은 ‘성찰의 집’에 오르는 계단 왼쪽편의 거목 사이. 당초 ‘성찰의 집’ 맞은편으로 동일 공간에 설치하지는 의견이 우세하였지만, ‘성찰의 집’ 설계-제작자인 승효상(2회) 동문과 재경동창회가 ‘성찰의 집’의 독립적 공간 개념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되지 못했다.

그러나 명비가 ‘성찰의 집’을 바라보는 형상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성찰의 집’을 보위하는 수호자적 위상도 지니게 됨으로써 한결 더 유의미한 개념을 내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병찬 회장은 “6.25 호국영웅의 추모 공간이 완벽하게 조성되었다”고 정리했다.

가로 335cm, 세로 120cm, 높이 85cm 규모의 검은 고흥석으로 전후 모두 경사지게 제작한 명비의 전면에는 건립취지문과 함께 참전동문 424명의 성명을 기수별로 새겨 넣었다. 전몰동문은 이름 위에 점을 따로 새겼다. 또한, 앞으로 참전동문이 추가로 확인될 것에 대비해 오른쪽 하단 일부를 여백으로 남겨 두었다.

명비 후면은 전체를 태극 문양으로 샌딩 처리해 광대한 포부와 기상을 표현했는데, 특히, 마름모꼴의 측면은 용마의 날개깃을 형상화함으로써 국민과 국가를 상징하는 후면의 태극 문양을 등에 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고귀한 희생이 나라를 지킨다는 의식을 새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힌 설계자 문종승 전 한서대 교수는 “진취적인 기상과 높은 이상을 실현하는 경남고의 랜드마크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참전자 동문 배려에 아쉬움”

용마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 건립은 국가보훈청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졌으며 사업주체는 부산 지방보훈청이다. 이날 제막식 행사는 보훈청, 학교, 동창회의 몇 번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나 식전후로 참전자 동문들을 일일이 신경 써주지 못한 부분은 약간 아쉬움으로 남았다.

거동이 편치 않은 서울동기들에게 참석을 권유했다는 한 원로동문은 “콜레라과동 때문에 생선회는 안 먹겠다고 해서 18번 완당집에서 점심을 대접했다”면서, “식사대접은 차치하더라도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을 전철역이나 부산역까지는 모셔야 했지 않느냐고 섭섭해 했다.”

소명 하나로 바친 4년 ... 가족 만류, 숨바꼭질 4년

호국동문의 '수호천사' 배중현 동문, "주인 잃은 자리는 남겨 두었다"

생업은 놓고 수술도 미루고 ... 컴퓨터 전선 끊은 아내 몰래 PC방 전전



7년 전부터 한국전쟁 전사기록 자료를 찾는데 몰두해 온 배중현 동문은 명비에 새길 대상자를 확정하기 직전까지 참전확인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정석희(5회, 오른쪽 사진) 동문의 '생환' 사진을 찾고 감격해 했다.



청춘이었다. 전몰순국 용마 1호, 육군 소위 계급이 추서되었다.

참다못한 아내, 컴퓨터 코드를 지른다

호국영웅 명비 건립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행한 국가사업이다. 그래서 명비에 등재할 참전 유공자 확정 사항은 국가보훈처 소관이다. 배중현 동문이 전사자가 줄어든 이유를 밝힌 까닭은 그 때문이다. 그나마 참전 유공자가 424명으로 확대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겠다.

4년 넘게 참전동문 발굴 작업을 벌이면서, 그는 안팎으로 구축된 전선에서 전투를 벌여야 했다. 생업을 작파하고, 건강마저 돌보지 않으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인 그를 가족들이 방입할 수 없었던 것은 지당했다. 그러나 야간작업을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보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아내는 급기야 컴퓨터 코드를 잘라 버렸다. 컴퓨터 작업마저 원천봉쇄 당한 셈이다.

그는 내년 초, 대동맥 판막 이상으로 미뤄 놓은 담낭수술을 할 참이다. 가족들은 그가 이제 컴퓨터와 결별하리라 믿고 있다. 다만, 아내는 그의 아침 산책시간을 더러 미심쩍어한다. 2시간이면 족할 거리를 3시간이나 소요하기 때문이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 1시간이 그에게는 무지하게 소중한 것만은 사실이다.

제막식 다음날, 그는 예비역 중령 한성렬(3회) 동문이 참전 유공자로 확정됐다고 알려왔다. 뒷날, 명비 오른쪽 하단 여백에 새겨 넣을 것이라고 했다. 참전동문은 벌써 424명에서 425명으로 바뀌었다.

배중현 동문이 발굴한 자료와 남긴 기록은 그 자체가 거대한 전사(戰史)이자 불퇴전의 무용담이다. 9월27일 제막된 용마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 또한 그렇다. 그렇다면, 장장 7년간 진군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대장정이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까.

아무래도 아직은 모를 일이다. 그는 명비에 참전동문 이름을 새기기 직전까지 '전투'를 마감할 수가 없었다. 결코 종식할 수 없는 술한 전투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일전은 정석희(5회) 소위의 '생환' 작전이었다.

전쟁발발 나흘 뒤 산화한 정석희 생도

그는, 명비 제막 100여일 앞두고 발행된, 6월1일 <용마>에 게재한 '전사자가 줄어든 이유'에서, 미어지는 아픔을 무릅쓰고, "5회

정석희 소위, 이조영 병장은 보훈처에서 참전이나 전사기록을 찾지 못하고, 학적부나 동창회 명부에도 없으므로 삭제됨"이라고 기록했다. 국가보훈처가 유공자로 확정할 수 없는 참전동문들이었다. 안타깝게도, 정석희 동문은 동작동 서울현충원 54묘역 4판에 2194호로 안장되어 있는데 말이다.

"너무나 억울하고 아쉬웠다. 급한 마음에 세 번째로 묘교를 방문했다. 학적부를 뒤지고 또 뒤지고... 밤을 새우다시피 이름을 뒤졌건만 정석희 동문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고전에 고전을 거듭했건만, 그의 전의(戰意)는 도무지 사그라들 줄 몰랐다. "중학교 때 찍은 정석희 군 사진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라며 말끝을 흐렸던 정인조(5회) 동문에게 최후의 SOS를 타진했다. 유족들과 다시 한 번 더 빈틈없이 '수색'해

보시라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정석희 동문이 '생환'한 것이었다. 유족들의 희미한 기억 속에 잠자던 그 사진을 찾아낸 것이었다. 사진을 받아든 그는 치밀어 오르는 감회를 가누지 못했다. 늙은 체구에 쌍백선이 선명한 경남중 교복을 걸친 그 귀공자는 마치 "배중현 중위! 수고했어!"라며 손을 내미는 듯했다.

故 정석희 소위. 그는 경남중 5학년 재학 중인 1950년 봄, 4년제로 개편된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했다. 그해 6월1일, 그는 육사생도 2기생으로 입교했고, 입교 25일 만에 생도로서 전투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사흘 뒤 6월29일, 경기도 용인지구 전투에서 인민군 탱크에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산화했다.

열여덟살의 외동아들, 꽃보다 아름다운

명비 건립의 숨은 주역 / 부산지방보훈청 이순희 현충교육팀장

"용마동문 애국정신, 투철하고 탁월했다"



호국영웅 확인작업을 주관한 이순희 팀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 건립'은 국가보훈처의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동안 현충-

보훈 관련 기념 조형물은 대부분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고, 몇몇 경우는 사업비의 30% 이내를 국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사상 첫 국가사업 시행 학교는 전국적으로 18개교. 부산지역에서는 14개교가 학도병으로 참전했지만, 2013년 육군본부 참전자 명패를 수여한 모교와 동래고, 부경고, 개성고 등 4개교가 선정 대상에 올랐다. 실무를 주관한 부산지방보훈청 이순희 현충교육팀장은 "경남고는 참전동문 수호가 월등했을 뿐만 아니라, 동문들의 보훈-애국 사상 측면에서 단연 돋보였다"면서, 특히 2013년에 조성된 전몰동문 추모 공간 '성찰의 집'을 특별히 높이 평가했다.

국가사업으로는 처음인 만큼 실무자들은 유례없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명비에 등재할 유공자를 확정하는데 오류나 결함이 발생해서는 곤란한 일이었다.

"지난해 정월부터 7월까지 수시로, 보조직원 한 명과 경남고 행정실과 동창회 사무실에 진출 치고 참전자 한 분, 한 분, 확인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학적부가 개인비밀에 관한 것이어서 외부 반출이나 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학적부를 조심조심 넘기며, 해독하기 어려워 만큼 날려 쓴 한자, 또, 명단 자료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생년월일 등등... 진땀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오후 4시30분이 지나면 행정실 직원들의 표정이 아주 난처했어요. 6시 퇴근이 습관화된 저는 학교 퇴근시간을 몰랐던 거죠. 쫓겨나다시피 나올 수밖에요..."

학적부 대조하며 확인, 시력 상하기도

학적부뿐만 아니라,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자료와 국립현충원 안장자 명단까지 대조하여 확인했다. 이순희 팀장은 요즘도 그때 상한 시력에 신경이 쓰인다. 또한, 재

학생으로 참전한 학도병만을 등재 유공자로 확정하느냐, 전몰 학도병만 등재하느냐, 참전자 모두 등재하느냐 따위로 적당히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그래도, 여러 차례 부산에 내려와 수일간씩 머물면서 때로는 논쟁도 벌이며 꼼꼼하고 차분하게 도와준 배중현 동문이 고맙기 그지없다. 그래서 "고생했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다"면서 "이제 다른 학교 명비 작업을 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한다.

이순희 팀장의 또 다른 숨은 공로는 명비의 조형미. 2천만원~4천만원으로 할당된 건립경비로 조달 입찰할 경우, 유명작가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전시 소재 '트임' (대표 정근모)이 시공한 모교 명비의 실질적 작가는 한서대 교수를 지낸 '뮤제씨엠' 문종승 대표이다. 유엔기념공원 시설·디자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종승 대표는 이미 유엔기념공원의 여러 명비를 제작한 유명작가인데, 문 대표를 끌어들이는 장본인이 이순희 팀장.

조형미에 관해서도 '자신 있다'는 표정으로 이 팀장은 한 마디 덧붙였다. "참전 유공자가 가장 많아 경남고 명비가 가장 크고, 비용도 가장 많이 들어갔어요."

“부동산 임대 수익 모델 검토할 때 되었다”

이병찬 회장 저금리 상황 타개 방안 시사 ... 야구부 지원금은 초비상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최대 과제인 공익재단 등에 비상이 걸리면서 우리 동창회도 예외없이 타개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병찬 본부회장은 최근 열린 분과위원장-기별회장단 연석회의 등에서 동창회 재산 활용과 관련해 “효율성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병찬 회장은 “모교 발전기금과 장학회 기본재산을 합쳐서 적절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수익으로 모교 지원 사업과 동창회 사업 경비에 충당하는 것도 연구해 볼 만하다”고 말해 부동산 임대수입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지난해 본부동창회의 경우, 용마장학회 이자 수입으로 모교 야구부 감독과 코치 급여를 보조해 오고 있는데, 장학회 이자 수입은 3,236만원인 데 견주어 지원비는 5,564만원으로 2,328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우수선수 보조금과 전국대회 출전



이병찬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분과위원장 회의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지난 9월20일에는 박명진(33회) 부회장 초청으로 김해시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열렸다.

보조금의 경우, 기별 동기회가 납부하는 야구후원회 지원비도 수입은 1,930만원인 데 견주어 지출은 2,438만원으로 508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예금 금리가 5년 만에 5%대에서 2%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기존의 현금성 자산 위주의 운용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은 대체적인 추세이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대형 기금은 이미 현금성 자산

이외에 주식, 채권, 대체투자에도 눈을 돌려 은행 금리를 훨씬 상회하는 6%대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 투자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출구전략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재단 관계자들은 “보수적인 문화로 인해 당장 크게 바뀌기가 쉽지 않겠지만, 저금리에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투자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형 기금의 경

우, “전문 인력 부재 및 운영 문제 등으로 맡기 않아 투자 다변화 결정에는 현실적 장애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동 운영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모교 야구부 후원 관련 계정은 이미 수년 내리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누계 적자가 1억원에 임박하며 동창회 운영 기조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최상의 방법은 기금 규모를 키우는 것이지만, 기부에 대한 피로감 또한 만만치 않아 돌파구를 찾기 위한 중지를 모으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 9월20일 김해시 아이스퀘어 호텔에서 열린 본부 이사회-분과위원장 회의에서도 자산 활용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특히 공익법인인 용마장학회의 재산은 재학생 장학금과 교사 연구비 등 목적사업에 국한해서 사용해야 하는 법규를 감안해 장단점을 가려서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분과위원장-동기회장·국장 연석회의 열려

2차례 개최 ... 동창회 자산 운용, 야구부 지원 등 협의

본부 분과위원장과 동기회 회장단과의 연석회의가 두 차례에 걸쳐 열렸다.

작수 기수들을 초청한 1차 회의는 지난 6월1일 남구 광안리 용마힐집에서 열렸고, 홀수 기수들이 참석한 2차 회의는 7월6일 남구 광안리 수정힐집에서 열렸다. 동기회장과 사무국장을 초청해 연석회의가 열린 것은 꽤 오랜 만이다.

연석회의에서 이병찬 회장은 동창회 사무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기별 동기회의 각별한 협조를 요망했다. 이병찬 회장은 저금리 사태 등으로 인해 동창회 재정 상황이 여의치 못하게 된 사유를 밝히며 “발전기금과 장학회 재산을 합쳐 적정 건물을 구입해 임대사업 수입으로 동창회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찬 회장은 “모든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하고 “특히 51회 이후 기수 후배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황유명 사무총장은 모교 야구부 지원사업과 관련해 “동문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동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야구부 후원 자동이체 계좌 개설 운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진행 중인 회원명부 발간 작업에 기별 동기회 사무국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망하고, 기별야구대회를 비롯해 용마골프대회와 김영삼 대통령 흉상 제막식, 용마의 밤 등 하반기 주요 행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참석자들 가운데 다수는 재경동창회의 회원명부 제작 과정에서 본부동창회

를 비하하는 표현과 혐조 거부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재경동문들에게 발송한 사태에 대해서 자조지종을 따지는 질문과 성토 의견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재경동창회 회원 자격 거취지

를 기존의 수도권에서 강원도와 대전시, 충청남북도까지 포함한 회칙 개정에 대해서도 “동창회를 분열시킬 우려가 있으며, 총동창회 회칙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당당한 50회 홈커밍 바톤 터치

졸업 20주년 홈커밍, “10년마다 계속될 것”



50회 동기회가 졸업 2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홈커밍 전통을 당당하게 이어갔다.

제50회 동기회가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 행사를 열어 전통계승에 큰 몫을 해냈다. 50회 동기회는 10월15일 저녁 해운대 그랜드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서울 등지에서 귀향한 동기 100여명과 은사, 내빈 선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홈커밍데이 기념연찬회를 열었다.

류부근 재경동기회장은 개회사에서 “반가운 동기들의 얼굴에 깃든 세월의 흔적을 보니 지난 20년 세월이 실감난다”면서 “냉

혹하고 치열한 사회에서 앞만 보고 달려온 동기들에게 장차 작으나마 행복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영인사에 나선 박종현 본부동기회장은 “오늘 이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며, 선배들의 전통에 따라 이후 10년마다 계속될 것”이라며 “저마다 열심히 달려온 우리 모두, 스스로 뒤를 되돌아보며 10년 후에 만날 때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는 것도 즐

거운 일”이라고 자축했다.

남진현 본부 자문위원장은 이병찬 회장을 대리해 축하인사를 전했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서병수 시장도 축하 동영상을 통해 용마의 전통을 이어가는 멋지고 즐거운 자리가 되어 달라며 격려했다.

이날 연찬회는 모교에서 정년퇴임한 마삼목 선생을 등장시켜 국어시간을 재현하고, 작고한 은사와 동기들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져 끈끈한 우정을 나누었다. 3학년 담임을 맡았던 강동원, 김이식, 이승렬, 김학출, 박홍권, 신두진, 마삼목, 심재용 은사들도 모처럼 제자들과 어울려 흐뭇한 시간을 보냈다.

50회 동기회는 야구부발전기금 200만원을 서강태 모교 교장에게 전달했고, 동창회에는 특별기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타계한 동문 경력 기록

신간 회원명부, 용마인맥 재조명

본부동창회 회원명부가 주소록 기능을 넘어 인명록 구실도 할 것으로 보인다. 동창회 사무국은 새로 간행할 회원명부에 타계한 동문들도 생전의 주요 경력을 기록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간행된 회원명부는 타계한 동문들은 ‘작고’ 사실만 기록했다. 그러나 원로 동기회의 경우, 생존 동문보다 타계한 동문들이 더 많아,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결여한 것은 물론이고 열람하기에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새로 간행할 총동창회 회원명부는 타계한 동문들의 대표적인 경력을 기록함으로써 선배들의 행적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후배들에게는 용마인맥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할배야구단’ 19회:24회 격돌로 개막

제48회 기별야구대회, 26개 기수 참가 ... 4주간 열전



반세기 역사를 눈앞에 둔 기별야구대회가 모교 운동장에서 개막되었다. 입장상은 21명이 참석한 40회 동창회가 받았다.

제48회 동창회장기쟁탈 기별야구대회가 지난 10월2일 모교 운동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4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장년부 14개 팀과 청년부 12개 팀 등 26개 팀이 입장한 가운데 이재화(25회) 경야회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이길상(6회) 경야회 고문과 남진현(19회) 본부 자문위원장, 서강태(30회) 경남고 교장을 비롯해 용마가족들이 참석했다.

최다참가 입장상은 21명이 참가한 40회 동창회가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32회(19명)과 36회(16명)도 2위, 3위 입장상을 받았다. 개회식이 끝나고 대회 첫 경기로 열린 19회:24회 경기는 참가 기수 가운데 노령순위 1위(70세)와 2위(65세)가 격돌한 ‘할배야구’로 관심을 끌었는데 24회가 12:11으로 신승했다. 24회는 2회전에서 26회에 0:1로 아깝게 탈락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19회를 포함해 24회, 26

회, 27회, 28회, 29회에 이르는, 환갑을 넘긴 기수들이 노익장을 과시함으로써 반세기 역사를 앞둔 기별야구대회를 더욱 빛냈다. 청년부와 장년부, 양대 결승전은 모두 오는 29일에 치러진다.

한편, 대회 개막에 앞서 8월25일 동구 수정동 협성비페에서 열린 대표자회의를 열고 추첨을 통해 대진표를 확정하고 대회 진행 절차 등에 대해 협의했다.

새 얼굴/경야회 신임 회장 이재화 동문

“기금조성 다시 하겠다” 명예회원제 검토 시사



경야회 새 회장 이재화 동문의 말투는, 투박한 경상도 기질에 한술 더 떠서 겉쫓하게 풀어내는, 막걸리

맛과 같다. 그만큼 진정성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거부스럽지 않고 오히려 친근미를 물씬 풍긴다.

그는 경야회를 구성하는 내로라하는 왕년의 스타들을 슯제 ‘야구쟁이’라고 부른다. 야구선수를 무슨 기능공쯤으로 취급하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야구에 대한 애정과 함께, 유니폼을 벗고 난 뒤의 ‘허전함’도 뒤섞인 이재화 특유의 수사법으로 읽힌다.

“바닥난 기금을 다시 조성해야 합니다. 내부 정비도 해야겠지요. 밝힐 게 있다면 밝혀야지요. 일반 동문 선배들이 경야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는 경야회를 향한 시선이 꽤나 따가운 듯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경야회를 재건하는 뜻이 일차적으로는 ‘야구쟁이’들한테 있지만, 역부족일 경우에는 경고 야구를 사랑하는 동문들을 명예회원으로 영입해서라도 지속가능한 구조로 구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00명에 가까운 스타 회원들이 포진한 경야회 역시 노소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전히 엄격해 보이는 야구부의 위계질서가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40회 이후의 주니어 그룹의 활약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구상도 그 때문이다. 이재화 회장은 경야회 내외를 가리지 않고 의견을 구하고 필요한 협조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마등반대회는 12월 11일 영남 알프스 일원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 확정

‘2016년 용마의 밤’ 12월8일 경남중학교
김영삼 대통령 흉상제막식 11/22 경남고, 골프대회 11/7
당구대회 11월26일, 등반대회 12/11 영남 알프스 일원



본부동창회 하반기 주요행사 일정이 확정되었다. 2년마다 열리는 ‘용마의 밤’은 오는 12월8일에 개최된다. 사진은 ‘2014년 용마의 밤’ 광경이다.

본부동창회가 2016년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2년마다 거행되는 용마인의 축제 ‘용마의 밤’은 오는 12월8일(목요일) 저녁, 교동이 편리한 모교 경남중 강당에서 막을 올린다. 본부동창회는 행사준비 기획단을 구성해 프로그램의 내실을 꾀하고, 재경동문을 포함한 지역동문들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11월 22일 오후 2시 경남고 교정에서는 김영삼 대통령(3회 졸업) 흉상 제막식이 거행된다. 김 대통령 서거 1주년을 맞이하여 32년간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종식시키고 문민정부를 출범시켜 민주주의 사상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고자 추진된 이날 제막식에는 국내외

동문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창회장기쟁탈 제18회 용마골프대회가 오는 11월7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동래 베네스트C.C에서 티오프된다.

종래와 같이 기별야구단제전과 단체조 개인전, 그리고 개인전 A, B조로 거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50개 조, 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성부 개인전은 참여도가 낮아 올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벤츠 홀인왕상과 이글 특별상을 비롯한 각종 시상과 행운상이 수여된다.

또한, 용마당구회는 지난 10월9일 총회를 열고 제4회 용마당구대회를 오는 11월



용마당구회 김종광 회장

26일 부산 중구 광복동 다비치당구장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노령화 추세와 함께 당구 동호인들이 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번 당구대회에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20개 동창회 대표가 참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마당구회는 이날 총회에서 김도살(22회) 회장 후임으로 김종광(23회) 동문을 추대했다. 김도살 동문은 용마당구회를 결성하고 1회부터 3회까지 당구대회를 개최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다.

신임 김종광 회장은 제4회 대회를 치른 뒤, 동창회와 용마당구클럽을 신설, 개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당구 애호 동문들을 위해 당구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폭넓게 의

경야회 새 사령탑 이재화 동문

경야회 재건 다짐, 부회장에 곽동열, 신영석

모교 야구부 출신 동문회인 경야회는 지난 8월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재화(25회) 동문을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부회장에는 곽동열(38회) 동문과 신영석(40회) 동문이 선임되었다.

중앙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경남중과 경남고 체육교사로 재직하며 모교 야구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재화 신임회장은 경야회 재건을 다짐하며, 기금조성 과업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는 모교 야구부에 대해 평가하고 경야회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신임 경야회 집행부

• 회장:이재화(25회, 전 경남고 교사) 부회장:곽동열(38회, 현대자동차 연산지점 차장) 신영석(40회, 국민건강보험 부산중부지사 과장) 사무국장: 박종석(32회, 현대인테리어 부장)

홈커밍 40회, 체력단련 기구 기증

모교 야구부 지원금품 답지, 46회 3년째 고글 선글라스 오영은·구본능 동문 출전 격려금, 재경동창회도 2백만원



40회 동기회는 졸업 30주년을 기념해 모교 야구부에 시가 700만원 상당의 체력단련 기구를 기증했다.

올해에도 모교 야구부를 지원하고 필승을 성원하는 금품이 답지했다.

모교 당국에 따르면, 40회 동기회는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 행사의 일환으로 경교 야구부에 시가 700만원 상당의 체력단련 기구를 기증했다. 40회 동기회(본부회장:우



4년 전부터 모교 야구부를 지원해 온 46회 동기회가 세 번째로 구글 선글라스를 기증했다.

영환, 재경회장:이흥기는 지난 6월4일 모교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서강태 교장에게 기증증서를 전달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46회 동기회도 시가 460만원 상당의 고급 고글 선글라스를 기증했다. 김대기 회장 등은 지난 6월 모교 야구부 숙소인 남애관을 찾아 후배들을 격려하고 경기용 고글 선글라스를 직접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성환 재경동기가 회사한 간식용 햄버거 쿠폰(100만원 상당)과 이성민 동기가 기증한 웨이트 밴드(시가 50만원 상당)도 각각 전달되었다.

46회 동기회는 4년 전 체력단련 기구를 처음 기증한 뒤로 올해까지 3년째 경기용 고글 선글라스를 전달해 오고 있다. 김희택 동기회 사무국장은 "해마다 10명 이상의 후배 선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코치용을 포함해 20개 내외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4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개막된 제71회 청룡기야구대회에서도 동문들의 성원이 이어졌다. 모교 은사이기도 한 오영은(6회) 동문이 격려금으로 70만원을 전했다. KBO 총재인 구본능(21) 재경장학회장도 200만원을 전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또한 윤성환(46회) 동문은 50만원 상당의 햄버거 쿠폰은 전달하고 후배들을 응원했다.

한편, 윤성복 재경동창회장은 지난 8월3일 개막된 제44회 봉황기야구대회에 출전한 모교 선수들을 격려하고 200만원을 전달했다.

YS 홍상 건립위치 확정

11월22일 1주기에 제막식



제14대 대통령 김영삼(3회) 동문의 홍상을 건립할 위치가 확정되었다. 오는 11월22일 고인의 1주기에 제막될 홍상은 용마상 뒤편 옥외 세면대가 설치되었던 장소에 건립된다.

건립위원장이인 이병찬 본부회장은 "모교 당국과 건립 위치를 모색한 결과, 세면대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모교 당국은 옥외 세면대가 재학생들에게 요긴한 시설이고, 세면대 이전 문제는 교육청 당국에도 보고할 사항임을 들어 난색을 표했으나, 홍상 건립의 의미와 참배객들의 접근성 등을 내세운 동창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치를 확정했다.

세면대를 철거하고 건립 장소를 정비, 조성하는 공사는 (주)신태양건설 회장이인 박상호(26회) 문화분과위원장이 협찬해 실시되었다.

한편, 이병찬 회장은 10월13일, 홍상제작을 후원한 김영기(23회) 부회장과 함께 조각가 박희규(29회) 명예 동문을 만나 홍상 좌대 설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관련기사 13면>

“국제무대 통하는 선수 키우겠다”

배호원 동문, 대한육상연맹회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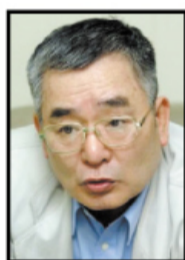
삼성정밀화학 대표이사를 지낸 배호원 동문이 9월5일, 제23대 대한육상연맹 회장에 취임했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배 회장은 “전국체전용이 아닌 국제무대에서 통하는 선수를 키우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그는 리우 올림픽 결과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했다면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꾀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 체제로 조기전환해서 4년 뒤에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배 동문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삼성그룹에 들어가 삼성투신운동을 비롯해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정밀화학에서 각각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육상인들은 배

동문의 취임으로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각종 지원 시스템이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이다.

작가 천금성 동문 타계



국원영어업기술훈련소를 수료하고 항해사가 되었다. 1969년 처녀작 <영해발 부근>이

한국 현대문학에서 해양문학과 해양소설 영역을 개척한 소설가 천금성(14회) 동문이 지난 6월26일 향년 75세의 일기로 타계했다.

서울대 농대 입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한국해양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한국해양문학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MBC 편집위원, 현대해양 편집장 등을 지낸 고인은 동창회보에 회고록과 창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12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등단한 고인은 <허무의 바다> <은빛 갈매기> 등을 잇달아 발표함으로써 원앙어선 선장 작가로 명성을 드날렸다.

한국소설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한국해양문학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MBC 편집위원, 현대해양 편집장 등을 지낸 고인은 동창회보에 회고록과 창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12면>

제18회 동창회장기 용마골프대회

□ 일 시 : 2016년 11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 동시출발(샷건 방식)
오전 9시 30분까지 등록(접수)완료

□ 장 소 : 동래 베네스트 C.C (Tel. 051-580-0300)



- 참가인원 : 180명(45개조) 선착순
- 참가신청 : 1) 각 동기회 회장 및 국장
2) 각 동기회 골프회 회장 및 국장
3) 본부동창회 사무국
Tel. 051-245-7551 / Fax. 051-245-7550
- 대회구분 : 1) 기별대항 단체전 (스트로크 방식)
2) 단체조 개인전 (Gross 계산)
3) 개인전 A·B조 (뉴페리어 방식)
- 시상식 : 오후 4시 30분 동래 베네스트 C.C 야외 잔디밭
- ※ 벤츠 홀인왕상, 이글특별시상 등 각종 시상품과 행운상, 참가기념품 등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 여성부 개인전은 호응도가 낮아 올해는 없습니다.

용마스포츠 강자 26회, 필드도 장악했다

재경동창회 골프대회, 선수조 일반부 단체전 패자는 35회



재경동창회의 최대 이벤트인 기별대항 골프대회에는 전 범부부 장관 정치근(4회) 동문 등 원로동문들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노소동력을 즐겼다.

회(29회) 동문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김성훈(45회) 동문은 250m를 기록해 롱기스트상을 받았다.

한편 친선조 시니어부는 양희권(26회) 김성환(20회) 조해금(26회) 동문이 1, 2, 3위를 차지했으며, 일반부에서는 이광남(27회) 이경배(31회) 배종문(34회) 동문이 1, 2, 3위에 올랐다. 3회에서 14회 동문들이 출전한 골드 시니어부에서는 서정환(14회) 윤승홍(14회) 김용관(12회) 동문이 노익장을 과시하며 1, 2, 3위에 입상했다.

재경동창회가 주최한 제14회 용마기별대항 골프대회에서 시니어 그룹의 막내인 26회가 모든 부문을 석권하는 막강 전력을 자랑했다.

지난 9월 29일 강원도 춘천시 엘리스안강촌C.C에서 거행된 이번 대회에서 26회는 단체전을 물론 개인전과 친선조 개인상 부문까지 휩쓸어 시상식장을 내내 압도했다. 지난 8월 문경에서 '한마음축제'를 열고 야구, 골프, 당구 게임을 벌이며 결속을 다진 26회는 동창회 체육행사에서도 단연 강자로

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15회에서 26회까지로 편성된 선수조 시니어부 단체전에서 26회 최영수(73타) 전상섭(73타) 박원세(76타) 정종훈(86타) 동문조는 변용준, 김종환, 조백인, 장일형 동문조로 출전한 24회(합계 244타)를 22타 차이로 여유 있게 따돌렸다. 단체전 3위는 23회(서상병, 정규봉, 김영목, 유재호, 합계 247타)가 차지했다.

이에 따라 선수조 시니어부 개인전 챔피언은 최영수 동문이, 2위 자리는 전상섭 동

문이 거머쥐며 각각 2관왕에 올랐다. 개인전 3위는 최창희(21회, 76타) 동문이 차지했다.

27회 이하 기수들이 출전한 선수조 일반부에서는 35회 박윤섭(72타) 강현욱(76타) 이영오(80타) 이남기(81타) 동문조가 단체전 우승자로 군림했다. 2위와 3위는 30회(박광호, 이재봉, 최병태, 박진명)와 29회(김태희, 김윤영, 정기조, 배호경)가 각각 차지했다.

72타를 기록한 박윤섭 동문이 개인전 챔피언에 올랐고, 전상원(28회) 동문과 김태

박맹우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김성태 국민공감전략위원장



박맹우(25회) 의원



김성태(28회) 의원

국회의원 박맹우(25회) 동문이 새누리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울산 남구를 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맹우 위원장은 '민생 우선' '투명한 시장 운영'을 표방하고 "울산시가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 정책에 힘을 보태고 투명한 시장 운영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행정고시를 통해 관계에 진출한 박 동문은 청와대 행정관 등 중앙 요직과 지방 기관장을 두루 역임한 정통 행정가로 꼽히며, 특히 울산시장에 내리 세 번이나 선출돼 '다시 선임하고 싶은 목민관'으로 명성을 날렸다.

또한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진출한 김성태(28회) 동문은 조선의원으로 새누리당 국민공감전략위원장에 보임되었다. 김성태 동문은 "국민의 뜻을 앞서 파악하고, 앞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당 내외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혁신의 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성태 위원장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과 빅데이터 국가전략포럼 의장 등을 역임한 전문 정책통이다.

동창회보 기고
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기억 저장하는 공간”

‘성찰의 집’ 안내 조형물 설치



그동안 숙제로 남아 있던 '성찰의 집' 안내 조형물이 재경동문들의 협찬으로 설치되었다. 문규철 재경 수석부회장이(왼쪽)과 배준현 동문은 '성찰의 집'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꽃다운 나이에 장렬하게 산화한 전몰용마 33위를 추념하기 위해 헌정된 모교 '성찰의 집'에 뒤늦게나마 안내 조형물이 설치되었다.

임우근(19회) 당시 재경동창회장이 발의하고, 취지에 동참한 동문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지난 2013년 4월 30일

개교 71주년 기념일에 건립된 '성찰의 집'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명문의 전통을 내외에 과시하고, 호국정신을 표상하는 상징적 기념물의 하나로 꼽혀 왔다.

그러나, 건립 배경과 발현 내지 선양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안내 시설물이 없어 자초지종을 알 수 없는 모교 내방객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동안 모교 서강태 교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설계자인 승효상(25회) 동문 등에게 안내 시설물 설치 필요성을 설파해 왔다.

'성찰의 집' 입구 층층계 오른쪽에 설치된 안내 조형물은 승효상 동문이 디자인했다. 설치비용은 임우근 재경 고문과 문규철(23회) 재경 부회장을 위시해 재경동문들이 각축해 충당했다.

성찰의 집

한국전쟁으로 백척간두에 서게 된 조국을 구하고자 학업을 뒤로 하고 전선으로 뛰쳐나가 목숨을 잃은 33인의 동문을 추념하는 이 시설은 임우근 동문(19회)을 비롯한 여러 동문의 주창으로 경남고등학교 개교 71주년을 맞아 2013년 4월 30일에 헌정되었다. 설계는 건축가 승효상 동문(25회)이 맡았다.

오래 전부터 이 땅에 놓여 있던 바위를 다듬어 제단으로 삼고 그 주변에 내후성 강판을 들렀다. 이는 이 영역을 주변과 구별하여 경건하게 하고 죽음으로 조국을 지킨 동문들의 숭고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후성 강판은 표면의 녹이 속의 철을 영구히 보존하게 하는 특수합금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검붉은 색으로 변하는 표면은 지난 시간과 기억을 저장하는 듯하다. 여기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이 시설로 인해 스스로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하여 '성찰의 집'이라 이름하였다.

“PK가 대선 승부처, 여건 많이 좋아졌다”

문재인 동문 ‘용마 스킨십’ 활발 ... 대선 기대감 점화



문재인 동문이 모교를 방문하고, 오는 10월27일 창립총회를 갖는 동남열린포럼의 동문들과 산행을 했다.



본부동창회 임원들과 만난 문재인 동문은 4.13총선에서 PK지역 약진한 것을 평가하면서 내년 대선 승부처는 부산경남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25회) 동문의 대권 대망론 행보가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용마동문들과의 활발한 스킨십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동창회와는 소원했다는 비판적 여론을 불식시키고, 나아가서는 ‘집토끼’로 돌려놓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문재인 동문은 지난 7월21일 부산시 중구 부평동 본부동창회 사무국으로 이병찬 회장을 예방했다. 동창회 현황 등에 대해 답소를 나눈 문재인 동문은 이병찬 회장과 부평동 구포집으로 자리를 옮겨 동창회 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문 동문은 “지난 대선은 학교 다닐 때 버락 오바마 시합 공부 하듯이 치렀다”면서 “아쉬움이 많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동문들에게 충분히 다가가지 못한 것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문 동문은 지난 4.13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정치인으로 배수진을 치게 된 것은 “시민들 속으로 과고들어가 대선에 올리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여의도 정치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며 동문들과의 지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중고 아우라 크게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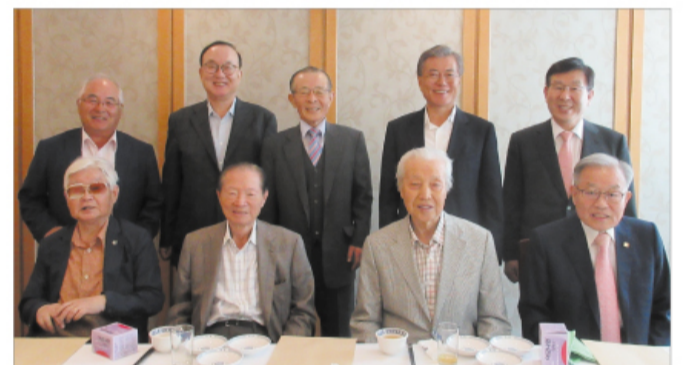
문 동문은 “지난 대선의 결과는 송구스럽지만, 득표율에서 보듯이 과분한 지지를 받았고, 여당 텃밭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 초선으로 제1야당 대표에 오를 수 있었던 것 역시 과분한 성원 덕분이었다”며 자신은 행복한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4.13 총선 결과를 정리, 설명하면서 동문들의 지지에 대해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당 대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다.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을 저지하고, 우리 당의 의석을 기존보다 더 늘이며, 우리 당을 전국정당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졌다. 제가 약속을 지킨 게 아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부산경남지역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결과는 그동안 우리 정치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지역 구도를 허무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그 바탕에는 제가 경남중고를 나왔다는 사실, 또 거기에서 비롯된 경남중고의 힘, 경



동창회를 방문한 문 동문은 이병찬 회장과 동창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동창회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재경 고문단회의에 참석한 문 동문은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재경 고문들에게 자신의 소신과 구상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남중고의 아우라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알게 모르게, 큰 힘이 되었다. 성원하고 지지해 준 선배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문 동문은 지역 구도의 부작용으로 인해 “그동안 야당은 수도권과 호남을 중심으로 대선 전략을 펼치며, PK지역을 소홀하게 다루었던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의 승부처는 PK가 될 것이다. 지난 4.13총선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경남지역이 수도권과 맞먹는 거점이라며 “수도권과 PK지역, 투 포트 전략으로 대선에 임하겠다.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밝히고, “지역사회의 지도층이며 여론 주도층인 경남중고 동문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청와대 가기 전에는 민원 들어 달라”

참석동문들을 대표해서 격려인사를 요청 받은 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송규정(16회) 동문은 “더운데 목이나 축이고 하자”고 말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든 뒤, 풍부한 경륜과 정교한 논리로 문 동문에게 조언했다.

송 동문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도 갈등이 심하고 어려운 국면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읽고, 머리보다는 가슴과 열정으로 다가가는 지도자가 요구되는 때”라며 용기와 열정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실재한다고 전제한 송 동문은 “보수다, 진보다 하는 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성공한 지도자가 되려면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정태적 시각이

아닌 동태적 시각을 당부했다.

또한, 박명진(33회) 동문은 문재인 동문이 과거 청와대에 있을 때 동문들이 면담조차 할 수 없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청와대 가시면 하지 않을 터이니, 청와대 가시기 전에 민원 좀 들어 달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규정 자문위원, 이용흠(19회) 본부 고문, 남진현 자문위원장, 이준만(19회) 전 자문위원, 송정규(25회) 박상호(26회) 김현태(30회) 류명석(31회) 박명진(33회) 류장근(33회) 윤경만(38회) 이양걸(41회) 부회장과 이요섭(27회) 전 경남중 교장, 서강태(30회) 경남고 교장, 윤병진 경남중 교장, 강병균(38회) 부산일보 해양문화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문재인 동문은 8월에도 동문들과 다양한 접촉을 계속했다. 지난 8월19일에는 본부동창회 월례회에 참석해 회포를 풀었다. 이 자리에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한석정 동아대 총장 등 지역 유지 동기생들이 다수 참석했다.

21일 오전에는 모교 경남고를 방문하고 서강태 교장으로부터 모교 근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포럼 결성을 준비중인 동남열린포럼 회원 50여명과 구덕산 꽃마루 산행을 함께했다. 문 동문은 산행을 마친 뒤, 예천집에서 오찬 모임을 가지며 대화를 나누었다. 막걸리를 곁들인 이날 모임은 시종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열기를 내뿜었다. 22일에는 송정규 회장 초청으로 등대회 이사회에 참석해 최근 해운업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청문회 방불케 한 재경 고문단회의

서울에서도 동문접촉이 활발했다. 문 동문은 지난 7월11일 서울 여의도 열린에서 열린 재경동창회 고문단회의에 참석해 원로 동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선과 관련한 소신과 구상을 밝혔다.

인사차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재경 고문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잇달아 선배배의 만남을 무색하게 하며,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마저 팽배했다. 재경 고문들은 문 동문의 국가관과 안보관에 우려를 표하는 ‘사상검증’ 질문을 쏟아냈는데, 문 동문은 이를 회피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자신의 소신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도 동창회와 소원한 관계를 지적하는 ‘불편함’이 제기되었는데, 임우근 고문은 “문 동문이 모교발전기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서 동문 일각의 일방적 견해에는 와전된 부분이 있음을 시사했다. 진영 논리에 따른 듯한 공세적인 질문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고 명쾌하게 대처함으로써 문 동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의견도 모임 뒤에 나왔다.

본부와 재경동창회 순례를 마친 문 동문은 지난 7월29일 25회 재경동창회 초청 만찬회에 나가 “똥구두 신고 구덕 언덕을 오르내렸던 친구의 모습”으로 덕담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다. 이날 문 동문은 좌중을 세 차례나 돌며 술잔을 나누었는데, 글로벌 리더십에서 온실가스 해결까지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다.



사상 초유의 앙상블 ... 용마 선후배 공명의 하모니

서울용마코러스 정기연주회 ... 경고 합창부 협연, 경탄할 '사변' 연출 "아름답고 순수한 분위기" "경남고는 역시 명문이다" 각계 찬사 쏟아져

마지막 앵콜 송 '부산갈매기'가 울려 퍼지자 객석에서는 감흥의 물결이 너울처럼 일렁거리더니, 이내 무대 쪽으로 밀려갔다. 무대도 너울거렸다.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드는 단원들의 표정도 상기될 대로 상기되었다.

'합창으로 하나 되는 70년, 세월의 징검다리'가 세상을 향해 그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일찍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용마공동체만의 장엄하고 찬란한 '공명교(共鳴橋)'였다.

9월22일 저녁,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홀에서 막을 올린 서울용마합창단 2016년 정기연주회는 부산에서 상경하는 경남고합창단과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서 공연 전부터 이미 각별한 관심을 불러 모은 연주회였다.

대성공이었다. 이미 피날레도 끝나고 막은 내려졌으나, 커튼콜을 연호하는 청중들의 환호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날 공연에는 음악적 잣대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 80대 선배와 10대 후배, 그 세대와 세월의 간극 70년이 합창으로 마침내 하나가 되는 경이로운 공명이 객석을 압도해 버린 것이었다.

이지구 은사 상경, 노장층 동문들 다수 참석해

지난해 연주회에서 공연 순서를 안내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호위무사' 장성지(26회) 동문은 여느 프로와도 견줄 수 있는 내공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장성지 동문은 1천여 객석을 만장한 청중들에게 감사하고, 격의 없이 자유롭고 흥겹게 공연을 즐겨 달라고 부탁했다.

객석에는 부산에서 올라온 '구순(九旬)의 젊은 음악 선생님' 이지구 은사와 6.25 참전용사 오영은 은사, '영원한 피양제' 정성희 은사가 로얄석에 좌정하고 있었다. 이지구 은사는 지난해 '이지구-정성희 은사 헌정공연' 1주일을 앞두고 급환으로 입원하는 바람에 이쉽게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공연의 호스트인 윤성복(22회) 재경동창회장을 위시해 박대동(23회) 전 총동창회장, 박익룡(13회) 전 경찰청장, 김무성(24회) 전 새누리당 대표, 김성태(28회) 박성중(30회) 국회의원 그리고 서강태(30회) 경고 교장 등 동문들과 동문가족들도 삼삼오오 자리했다.

또한, 박기현 한국오페라단장과 보이스 오케스트라 이마에스트리의 양재무 음악감독, 안희동 전국고교동문합창단장을 비롯한 부산여고, 경남여고, 배정고, 광주일고 등 동문합창단 단장들과 차인태 전 문화방송 편성이사,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각계의 많은 내빈들도 저마다 호기심을 돋우며 사상 초유의 특별한 선후배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The Best가 아니라 The Only"

서울용마합창단은 이번 연주회를 우리 가곡과 민요(가고파, 비목, 군밤타령), 이탈리아 칸소네라(팔로마, 불 꺼진 창, 오 솔레미오), 러시아 민요(카쉴사, 스펠까라친, 불가강의



①앵콜 송 '부산갈매기'가 울려 퍼지자 객석에서는 환호의 박수가 쏟아졌다 ②서울용마합창단 구본홍 단장은 용마합창단은 'The Best'가 아니라 'The Only'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③난생처음 대형 공연무대에 오른 경고합창부는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④장성지 동문은 이날도 격조 있는 수사법을 동원해 공연안내를 멋지게 진행했다 ⑤50회대 시니어들이 동참한 용마중창단은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 ⑥성악전공 동문들 중심이 된 The K 중창단은 이번에도 브라운관 면모를 과시하며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벧노래) 등 세 장르로 편성했다. 정통에 무게를 두는 지휘자 배공내(18회) 동문의 음악적 캐릭터가 작용했음직한 대목이기도 했다.

60대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용마합창단 나름의 음악성을 시도해 보려는, 불가피하지만 적절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없지 않았다. 용마합창단이 지향하는 차별성은 "The Best가 아니라 The Only"라고 강조한 구본홍(20회) 단장의 언급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도 용마코러스가 꾸준히 진보하고 있음에 이견이 없었다. 부단한 연습의 결실이라고 입을 모으며 "한결 더 정제된 울림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창단의 약진에 주목했다. 가곡 '님이 오시는지'와 송창식의 '푸르른 날'을 선사한 용마중창단은 그동안 50회대 젊은 단원들의 활약을 복돋운 노력이 고무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였다.

경고합창부, 용마음악 DNA 입증

이날 공연의 히어로는 단연코 경고 합창부였다. 2학년 재학생의 1/4에 해당하는 60명 건아들은 난생처음인 서울의 대형 무대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용마 특유의 '음악적 DNA'를 보란 듯이 입증했다.

청순하고 단아한 하이틴의 화음은 놀랄 만큼 신선한 것이었다. 입시에 시달리는 치킨 모습도, 가공할 학교폭력의 그림자도, 차마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폐렴의 악몽도 한꺼번에 쓸어버린 청결한 조율이 객석을 사로잡았다.

모리꼬네의 '벨라 판타지아', 돈 베직의 '내 마음에 음악 있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는 객석을 메운 노장층 청중들에게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통제하기 어려운 요즈음 '고삐리'들이 '오렌지 향기는~'을 합창했다는 실황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합창으로 하나 되는 70년 ... 성공이 남긴 이야기들

“경고 따라가려면 7년은 넘어 걸리겠다”

동문합창단들 ‘경고 따라하기’ ... 재학생들 서울대-고려대 견학

재학생 후배들을 초청한 서울용마합창단 정기연주회는 본래 방침과는 조금 벗어난 것이었다. 지난 2014년 부산시 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9회 용마음악의 밤을 개최하면서 경남중, 경남고 재학생들도 참여하는 연주회를 격년으로 부산에서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의 당초 계획은 부산용마합창단과 경남중고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무대를 꾸미되 장소는 서울로 하자는 쪽으로 추진되었다. 서울용마가 기획과 진행을 거의 도맡아 하다가 2014년 공연 과정에서 부산을 왕래하며 겪은 고초가 적지 않아 부산용마가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 당초 방침을 유보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초청 계획은 크게 축소되었다.

저간의 사정을 제쳐 둔다면, 부산용마합창단과 경남중 난타팀이 이번 공연에 동참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모두 한자리에 같이 했더라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입대 사변’을 일으켰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경고처럼 합동무대 만들겠다”

이번 공연에 대한 찬사는 한전아트홀 2층 로비에서 열린 리셉션 자리에서부터 쏟아졌다. 이지구 은사와 정성희 은사는 특히 경고합창부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었다.

공연을 관람한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 송대성 박사는 “아름답고 순수한 분위기가 좋았다.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미 있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했다. 사회를 밝고 힘차게 만드는 멋진 행사였다. 경남고는 역시 명문이다. 이번 공연의 멋진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기를 기원한다”는 소감과 축하 인사를 전해 왔다고 배재욱(17회) 동문이 밝혔다.

‘사상 초유’라는 극찬이 줄을 잇는 가운데, 송대성 박사가 정의한 ‘멋진 정신’은 즉시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고와 부산여고, 경남여고 등 재경 동문합창단은 물론이고 서울지역 동문합창단과 호남지역 재경동창회도 용마합창단을 벤치마킹할 뜻을 밝히고 있다. 서울용마와 친숙한 재경동문합창단은 “반드시 재학생들과 합동무대를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하면서도 “경남고처럼 하려면 우리는 아마 7년은 족히 걸릴 것 같다”며 울상을 짓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경남고 음악담당 김영미 선생이 전한 이야기는 용마들을 한층 더 우쭐거리게 했다. 김영미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소회를 털어놓은 관객은 김영미 선생이 한때 재직했던 학교의 재경동창회 임원.

“왜 우리 모교에서는 경고처럼 합창반을 키우지 못했습니까?”라며 안타까워하는 그 선배의 ‘불면 원망’에 대해 김영미 선생의 답은 명료했다. “저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경남고 선배들과 같은 후배사랑과 성원은 없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견학, 선배들 선물세례

재학생들에게 공연 못지않게 귀중한 일정은 서울대와 고려대 견학. 선후배간의 징검다리가 합창 협연에 그치는 게 아쉽다고 판단해, 서울 소재 유명 대학 견학 일정을 추가로 기획함으로써 후배들로 하여금 더 넓은 세계로 웅비하는 꿈을 키우는 계기를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서울 나들이 선행과 공연 뒷담화로 밤잠을 설치 재학생들은 숙소인 양재동 더케이호텔을 출발해 오전 8시30분 서울대에 도착, 학생식당에서 2백여명의 서울대 학생들과 뒤섞여 아침식사를 했다. 느닷없이 등장한 고교생 일행에 멈춰 서서 서울대생들도 방문 사정을 들은 뒤 자연스럽게 어울려 식사를 했다. 이색적이면서도 절묘한 퍼포먼스였다.

재학생들은 서울대 교수 이우신(29회) 이현희(30회) 성상환(36회) 동문의 안내로 규장각을 비롯한 주요 시설과 교정



서울용마크로스 정기연주회에는 용마가족들 이외에도 고교동문합창단 단장들을 비롯해, 박기현 한국오페라단장, 양재무 보이스 오케스트라 이 마에스트리 음악감독 등 음악계 인사들과 차인태 전 문화방송 편성이사,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내빈들도 참석해 ‘명문 경남고’의 위력에 감탄사를 연발했다(상단 사진) 급한으로 입원수술을 해서 지난해 ‘이지구 정성희 은사 한정 공연’에 참석하지 못한 이지구 은사와 정성희 은사와 함께 참석해 제자들의 합대를 받았대(중단 사진) 선배들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린 경고합창단은 공연 다음날 서울대학교를 견학하고 서울대생들과 섞여 학생식당에서 ‘서울대 밤상’을 받았다. 이들은 오후에 고려대학교도 견학하고 고려대 교우회 부회장인 구분홍 단장의 안내로 고려대 곳곳을 둘러보았다. 선배들로부터 한뼘짜리 선물세례를 받은 합창부원들은 학교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서울대 규장각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을 둘러보았다. 서울대 재직동문회는 후배들에게 서울대 배지를 새긴 필통과 고시 메모리펜 등 학용품을 푸짐하게 선물했다. 서울대 견학에는 김경희(9회) 허훈(13회) 권영기(24회) 김영일(30회) 동문이 동행했다.

고려대로 이동한 재학생들은 역시 학생회관 식당에서 고대생들과 어울려 점심식사를 했다. 고려대 교우회 부회장을 역임한 구분홍(20회) 단장은 100주년 기념관과 4.18 기념탑, 인촌 동상 등 고려대 명소를 안내하고 후배들의 분발을 독려하는 당부도 곁들였다. 구분홍 단장은 고대방문기념 타월 세트 등을 선물했다. 고대 견학에는 장성지(26회) 동문이 동행했다.

제1회 외부 후원금 등 협찬도 풍성

이번 공연에도 숨은 일꾼들의 활약이 성공을 뒷받침했다. 특히 이재훈(39회) 이시원(51회) 허균형(52회) 동문의 노고에 단원들의 칭찬과 격려가 쇄도했다. 합창단 부지휘자인 이시원 동문은 50회 전후 동문들로 새 중창단을 구성해 지도하느라 지난해 말부터 주거지인 대구와 서울을 매주 오가며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시원 동문과 허균형 동문은 지난 7월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의 연습 상황을 점검, 지도하는 한편으로 김영미 교사

와 일정 등을 꼼꼼하게 협의하는 등으로 공연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모교 방문 때, 이들은 즉석에서 지갑을 열어 연습하는 후배들에게 햄버거 간식을 선물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훈 동문은 공연이 끝난 뒤, 부산에서 올라온 최용호(45회) 김지훈(47회) 동문 등을 포함한 The K 중창단의 성악 전공자 동문들을 따로 불러 뒤풀이를 겸해 자축연을 베풀었다.

한편, 이번 공연에도 뜻있는 동문들의 협찬이 많았다. 특히, 20년 전, 배재욱 동문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최영보 씨가 금일봉을 기탁해 외부 후원 제1호를 기록하는 경사도 겹쳤다. 협찬한 동문과 동기는 아래와 같다.

정기연주회 협찬자: 박종구(5회) 오영은(6회) 윤학근(12회) 이상택(13회) 박영주(13회) 신준호(14회) 오봉석(15회) 명호근(15회) 양휘부(16회) 김지호(18회) 오재동(18회) 이종순(18회) 임우근(19회) 서경석(20회) 구분홍(20회) 박준(20회) 허창수(21회) 최동완(21회) 이영화(22회) 윤성복(22회) 문규철(23회) 변용준(24회) 김정태(25회) 박영안(25회) 서준희(26회) 김영수(26회) 강희철(29회) 김홍기(29회) 이재훈(39회) 송지훈(42회). 제니스스포츠클럽, 용마20양상블, 23회 동기회, 23회 용마합창단, 24회 용마합창단, 코러스24, 26회 동기회, 26회 용마합창단, 50회 동기회, 51회 동기회



龍船 타고 떠난 해양문학 개척자 천금성 선배를 그리며

12.12 군사반란 전모는 그가 밝혔다

‘변절 작가’ 수모에 가려진 ‘캡틴 천’의 춘추필봉 전말

그때 그 시절 1

시시비비는 잠시 비켜두고 보자면, 단연코 당대의 ‘화제작’이었던 <황강에서 북악까지>가 출간되고 얼마쯤 지나서였다. 어머니 문안 인사차 부산에 들른 김에 지인들을 만나볼 요량으로 중앙동 부산문화방송을 찾았다. 보도국을 비롯해 제작부서가 모여 있는 3층으로 들어서자 그를 알아본 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허리 굽혀 한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아이쿠! 사장님 오십니까?”

한바탕 쪽소가 터졌다. 그 자리에 있던 문화방송 식구들은 능히 그런 인사를 건넬 만했다. 한때 사장을 지낸 김종신이라는 인물을 떠올린 것. 군수기지사령관 시절부터 박정희를 추종한 부산일보 기자 김종신은 1966년 <영시의 햇불>이라는 박정희의 ‘반신반인’ 행적을 출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이라는 근사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부산 MBC를 접수했다.

그때 그 시절 2

1983년 정월 어느 날, 서울 여의도 MBC 사옥은 무엇에 놀린 듯 무거워 보였다. 8층 홍보조사실은 더했다. 간부사원들은 금방이라도 “하필이면, 왜 여기냐?”라고 소리칠 것 처럼 보였다. 그날 아침 1층 엘리베이터 곁에 나붙은 방에는 이렇게 써어 있었다.

‘천금성, 임. 편집위원(부국장대우) 명; 홍보조사실 홍보부근무’

까놓고 말하는 게 좋겠다. ‘편집위원 천금성’ 인사는, 소위 전례에 비추어 감내하기 곤란한 ‘황당한’ 인사였다. 부산MBC 사장자리가 좀 과하다 싶으면, 전무나 상무로 보내면 될 것을, ‘사장대우’ 편집위원으로 발령하면, 그럼 우리는 어찌란 말이나는 그런 심사였다.

김종신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최근까지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지낸 이들이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살펴보면 이해할 터이다. ‘사장대우’를 ‘부국장대우’로 곤두박질친 그 인사는, 낙하산치고는 형편없이 불품없는 낙하산이었다.

<MBC가이드>를 두고 대결한 선후배

홍보조사실장과 휘하 부장들이 대형 불발탄을 곁에 두고 어쩔 줄 모르던 그때 그 시절에 필자는 천금성 선배를 만났다. 강제 폐간된 <뿌리깊은 나무>를 떠나 거기로 옮긴 필자는 <MBC가이드>라는 홍보매체를 창간하고 편집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MBC가이드>를 두고 천 선배와 한동안 침묵의 결전을 벌일 줄을 어찌 알았으랴.

명색이 최고 권력자의 전기물을 집필한 작가인데 생계조차 어렵다는 ‘비보’를 접하고 서둘러 자리를 마련한 사람은 문화방송 전무를 지낸 이수정 청와대 비서관이었다. 아마도 이수정 비서관이 <MBC가이드>를 보여 주며 천 선배의 의중을 살폈을 것이다.

<MBC가이드> 편집장이 후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 선배는 매우 당혹스러웠던 모양이었다. 선뜻 ‘공세’를 취하지 않고 ‘정찰’만 계속하는 듯했다. 그런 대치상황은 천 선배가 사내보 편집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종료되었다. 하겠다면 할 수 있었겠지만, 후배에게 양보한 것이었다.

그는 하릴없이 밥벌이나 하겠다는 심사는 아니었다. 어군을 쫓는 어로장처럼 근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실상 그의 배는 여의도에 좌초했지만 말이다. 경상도식 툐이 높은 그의 말투는 확성기로 성토하는 것으로 들릴 때가 많았다. ‘쪽발물’ 처리반이 출동할 타이밍이다.

처리반장인 필자는 ‘쪽발물’을 회사 바깥 안전지대로 옮기고 해체작업을 해야 한다. 그가 ‘오 내니 보이’ ‘하이논’을 열창하는 가운데 해체작업을 했던 여의도 룸살롱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쓸쓸한 재미를 보았다. 천 선배는 촌지가



만년에 이르러서도 천금성 동문은 배를 타고 오대양으로 나가기를 시도했다. 작가로서 변절했다는 수모에 시달린 그는 부산으로 돌아와 해양문학의 터전을 닦는 작업을 재개했고, 문단에서도 그를 재평가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활발하게 제기되었다(상단 사진) 그는 첫 작품집인 <허무의 바다>를 포함해 모두 16권의 작품집과 자전적 항해기 <불타는 오대양>과 다큐 실록 <6공 청문회>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중단 사진) 그는 <황강에서 북악까지>를 집필하며 5공 신군부 실세들로부터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상세한 정황과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가장 완벽한 역사 기록을 남겼다. 안기부장도 지낸 장세동 씨의 증언을 듣고 있는 천금성 동문(하단 사진)

생기면 지나치는 법이 없으므로 룸살롱 출입이 빈번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에게 청탁해 오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터였다. 신인가수 설운도가 방송에 등장하기까지 그의 힘이 상당히 작용했다. 천 선배는 그런 일을 신바람 난 듯이 처리했다.

방송사의 이정표, 다큐멘터리 <오대양을 가다>

‘6.29선언’ 이후로 표출된 민주화 바람을 뒤로 하고 그는 군말 없이 MBC에서 나왔다. 어찌될까세, ‘여의도 좌초’에서 탈출하는 것도 방편이었을 것이다. 다만, 당장 잡히지는 않지만, 그의 퇴장이 뭔가 허전하다고 여긴 이들도 없지는

않았다. 바다라는 범상한 현장에서 창출하는 그의 독특한 문학세계와 창의력을 붙잡고 싶었던 연출가들이었다. 아직 ‘바다’라는 소재는 성큼 뛰어들기 버거운 대상이지만, 언젠가는 다가오고야 말 필연적 존재였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는 실제로 몇 가지 전환적이며 획기적인 작업을 실행했다. 해양 다큐멘터리 <오대양을 가다>와 해양 드라마 <남태평양 3천마일>가 대표적이다.

<오대양을 가다>는 취재 기간만 4개월에 제작비 2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일본 NHK가 <실크로드>로 공전의 주가를 올리고 있었지만, 우리 방송계 형편으로는 전대미문의 획기적인 실험이었다. 70여개 나라를 돌며 취재한 영수증을 도무지 다 찾을 수 없어 상당 금액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할 형편이었지만, ‘천금성 특례’로 인정해 넘어간 것도 극히 이례적이었다.

부산에 내려와 있던 필자가 서울로 복귀한 1988년 초가을에 그를 다시 만났다. 집주소 달랑 들고 물어물어 찾아간 그는 누가 봐도 초췌한 형용이었다. 찾아 주어서 고맙다고 했다. 눈물을 활짝 쏟을 뻔했다. 9시 <뉴스데스크> 일을 거둬고 있어서 저녁 술자리를 마련할 수 없었던 게 못내 아쉬웠다. 소설 같은 바다 이야기며 급박했던 12.12 반란의 전말이 끝없이 나오는 술자리는 천 선배 특유의 신명이 철철 넘쳤다.

천금성 재평가는 시작되었다

문단에서는 매문(賣文)을 했다며 작품 게재를 기피하고 수모를 가렸지만, 언론매체는 그와는 달리 대접했다. 5공 비화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을 때, 그를 붙잡으려는 매체간의 경쟁은 사생결단이었다. 특히 <신동아>와 <월간 조선>이 벌인 사투는 월말마다 희비가 교차했다.

신군부 장교들에게 <황강에서 북악까지>는 ‘전두환 등극’을 둘러싼 공신록이기도 했다. 공신등급은 ‘변절 작가’의 붓끝에서 결판난 꼴이었다. <황강에서 북악까지>를 집필할 때, 군부 실세들은 다투어 그에게 고급정보를 소상하게 제공했다.

언젠가는 기록해야 할 역사임을 직감한 그는 내심 크게 환호했다. 실험중계를 방불케 하는 그 풍부한 실록 사초들을 빠뜨리지 않고 비장해 두었다. 너도나도 그를 만나려 했으므로 공치사로 분신한 것들조차 교차검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 때문했다는 수모 덕분에 군사반란의 전모가 명징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아이러니하다.

동창회보를 편집한 김차웅(19회) 선배는 천 선배를 깎듯하게 대접했다. 그의 문재(文才)를 높이 산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비루하게 권력에 빌붙어 영달을 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김차웅 선배의 배려가 주요했을 터이다. 그는 소설가로서 생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작품 소재를 찾기 위해 다시 바다로 나갈 수도 있었다. 그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견해와 요구가 먼저 부산문단에서 구체화되었고 이내 확산되었다.

해양문학상이 제정되고, 해양문학회를 결성하고, <월간 해양문학>이 창간되면서 천 선배에 대한 재평가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악마처럼 급습한 암세포까지 퇴치하리라고 믿었다.

설암 수술에도 불구하고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천 선배를 보며 해양문학이 바야흐로 제자리를 굳히리라는 기대가 컸다. 필자와 함께 글썽 한번 팔아 보시겠느냐고 물었을 때, 필자더러 원고료 더 가져가라며 좋아하시던 모습이 자꾸 아른거린다.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그의 허스키한 웃음소리가 맴돈다. 뱃고동 울리는 갯가에서 한잔해야 하리라. 오호! 그의 빈자리는 어찌하란 말인가. 무이 암스트롱보다도 더 매혹적인 그의 ‘대니 보이’는 이제 어디서 듣는단 말인가.

김영삼 대통령 흉상 조각가 박희규, 그는 누구인가



“YS 달려나와 당신을 맞으리라 했지요”

선친은 YS와 각별한 동지 ... 작가활동 재개 여부 주목

김영삼 대통령의 흉상 건립은 뜻밖에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흉상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 토를 달 리 만무하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일에는 땀만 들이던 전례에 비추면, 속전속결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소요 경비 일체를 책임 지겠다”면서 가장 먼저 흉상 건립을 제안한 휴롬 회장 김영기(23회) 동문의 결단이 주요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YS 흉상 건립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그럼 흉상을 누가 조각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일사천리’나 마찬가지였다. 마치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처럼 쾌속질주를 한 셈이다. 다만, 발탁된 조각가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의외의 인사였다는 점이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부풀렸다.

YS 흉상을 조각한 박희규 씨는 지역 화단에서도 생소한 인물이었다. 정작 제작가로 낙점한 김영기 동문도 “전직 교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이른바 ‘무명 작가’와 전직 대통령을 잇는 연결고리는 미스터리 투성이였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의 실체는 간단치 않았다. 조각가 박희규 씨와 YS의 만남이 좀 더 이른 시점에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연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40대 기수론 펼치던 당당함에 초점

그는 김해 생립면에 산다. 김해동창회는 그를 한술밥 식구로 대접한다. 이미 3년 전에 명예회원으로 영입하고, 절친한 동문들과 연배를 잡자해 29회로 내정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김해동창회 밴드에 등장할 만큼 소속감과 유대 의식이 각별하다. 검정고시를 거쳐 부산대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를 나온 그에게는 고교 선배들이 ‘왕창’ 생긴 셈이다.

검정고시가 등장할 만큼 그의 청소년 시절을 가난하고 불우했다. 그의 아버지 탓이었다. 함안의 빈농 집안 출신인 아버지 박성지 씨는 어렵사리 동아대 법대를 나와 정치에 투신했다. 윤보선 계보인 민주당 구파에서 활동하며 김영삼 동문과도 가까운 사이였다. 경남도당 조직부장이라는 요직도 역임했다. 5.16 쿠데타 직후에는 가택연금을 당할 만큼 지역 정치권의 핵심 인사였다.

그러나 당시의 야당 정치인들이 그러했듯이, 아버지도 딸된 식구들 건사하는 데는 무기력했다. 그가 사범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가난 때문이었을 터이다.

“선친은 맹렬한 YS 추종자였지요. 반평생을 김영삼 대통령을 위해 쏟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전에는 골잡, 당신을 청와대 문 앞에만 데려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반드시 YS가 달려 나와 당신을 맞을 것이라고 했지요.”

그는 선친의 생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내심 안타까워하는 듯 보였다. 하



김해동창회 명예회원인 조각가 박희규(29회) 동문은 김영삼 대통령의 흉상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1989년에 걸어 잠겼던 작업실을 다시 열었다. 지난 9월7일 그의 생일에 김해 동문들의 축하하러 그의 집을 찾았다(오른쪽 사진).

여, YS 흉상 복장(腹臟)에 아버지의 기억과 소망을 몰래 넣어 두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를 결코 원망하지 않을뿐더러, 그 역시 YS 추종자이기도 하다. 특히, 최연소 야당 원내총무에 오르며,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당당하게 대권 도전을 선언하던 모습은 쉽게 지울 수가 없다.

“이미 제작된 YS 흉상은 대개 대통령이 된 이후의 모습입니다. 저는 경고에 세울 YS는 역발산의 기세로 당당했던 40대 모습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또 흉상 오른쪽 어깨를 높게 표현한 것은 대중을 향해 손을 들고 사자후를 토하던 모습을 형상화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YS 흉상의 별칭을 정해 두었다. ‘Conductor of Politics’. 민주주의 광장에서 대중의 목소리를 조율해 정치적 하모니를 지휘하는 YS를 표현하고 싶었다는 뜻이다.

좌절과 실패 딛고 용마인으로 재기

그런데, 박희규 명예동문 그는 어쩌다 ‘무명작가’로 내몰리게 되었을까? 물론 ‘무명’이라 하기보다 잠시 ‘잊혀진’ 작가라고 해야 옳다.

그는 전임교수가 되기를 바랐으며, 그만한 자격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일찍이 전도유망한 젊은 작가로 꼽혔고, 굵직한 공모전에도 출품했다. 동래여고 교정에 세워진 동래학원 설립자 오태환 선생 흉상은 그의 1988년 작품이다. 또한 부산지역에서는 조소전공 석사학위 제1호 주인공이라는 점도 그의 학문적 면모를 엿보게 한다.

그러나 특정 학맥과 인맥이 추잡스럽게 얽힌 미술계의 실상은 그가 들어설 여지를 결코 제공하지 않았다. 공모전은 말할 것 없고, 전임교수 임용도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었다. 2인자 아닌, 2위 탈락자로 ‘버려지는’ 수모를 무뎠하게도 맞보아야 했다. 신물이 난 시간강사 짓을 하릴없이 집어치웠다. 작업실마저 대못으로 닫아버렸다.

한국 땅에 발을 디디는 것조차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두 차례나 미국 이민을 시도했다. 1999년 두 번째 미국행은 제대로 들어맞는 듯했다. 무역에 손댄 사업이 승승장구 일취월장을 거듭하여 한때 100억원대 재산



가로 아메리칸드림을 마음껏 누렸다.

그러나 모기지론 사태에 휘말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한사코 귀국을 마다하는 아내와는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 김해에 정착한 2009년의 일이다. 김해동문들과 어울리면서 한결 여유를 찾게 된 것은 그도 인정하는 바인데, 그가 조각가를 다시 쥐게 설득한 이상운(23회) 동문과는 혈육 뺏치는 아삼육이다.

YS가 아니었다면, 그가 작업실 빗장을 여는 일은 없었을지 모르겠다. 작업을 거의 완

료한 지금도 자신이 작가활동을 재개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YS 흉상 작업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인상을 감추지는 못했다.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할지 여부는 11월 22일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날 YS가 과연 40대 기수론자 모습 그대로 후배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 했다.

‘조각가 박희규’를 살려내는 일이 YS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까? 만일에 그렇다면, 그의 선친도 기분 좋아라하는 쪽으로 결정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척추디스크 비수술적 치료중심 클리닉
알파신경외과

+
비수술적 디스크치료
플라즈마수핵성형술 LDISQ

무통 통증 치료기
Scrambler Therapy

무통관절
증기세포 치료

성장 / 채형 / 재형
척추운동센터

- 내 아이 바른 척추로 180CM까지
- 바른 척추를 만드는 곳
- 비 맞춤 운동으로 척추 관절을 튼튼하게!

혈관청소
칼레이선요법

ONE DAY
지방흡입

성장 / 채형 / 재형
척추운동센터

원 장 박 인 석 (39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85
인제(성영)메디칼 B동 4, 5, 6층
TEL : 051-807-0114



지역동창회·동기회·동호회

중부산동창회 = 임무홍, 회장직무 대행

지난 9월 22일 부산시청 앞 '힐찬민물장어'에서 모임을 갖고 지병으로 수술치료를 받고 있는 임철호(24회) 회장의 직무를 오는 12월 정기총회까지 임무홍(25회)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기로 했다. 임철호 회장은 동문들의 양해를 부탁하고 중부산동창회의 단합을 당부했다. 임무홍 대행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인근에서 '123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30여

명의 참석동문들은 업소 공동대표 43회 김동민, 정재욱, 조성호 동문이 특별히 차린 보양식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김해동창회 = 바둑대회 및 동강투어

지난 7월 16일 김해동창회 사무실에서 16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바둑대회가 열렸다. 신동해(35회) 동문이 최고수에 올랐고, 김규선(36회) 차의수(29회) 김용진(36회) 동문이 2, 3, 4위를 각각 차지했다. 또 지난 8월 13일에는 2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해 강원도 영월 동강에서 래프팅을 즐기고 일대를 여행하기도 했다. 회장:조관제(25회, (주)왕건주류 부사장)

창원동창회 = 다랭이마을 야유회

지난 6월 12일 남해군 남면 가천리 다랭이 마을에서 4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동반 야유회가 있었다. 회장: 김종하(27회, 치과의원 원장)

고 있다. 현재 회장은 조학제(11회), 총무는 차준호(차순도, 18회) 동문이다. 차준호(18회) TEL : 64-21-479-522

사하지역

10월 16일 개최 예정이었던 등반대회는 우천으로 취소되었다.

18회 = 가을 야유회

지난 9월 25일 구만산 일대에서 70여명의 동기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 야유회가 있었다.

뉴질랜드동창회

지난 1995년 8월 출범하여 올해로 만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약 50여명의 동문이 거주했으나 현재는 22명의 동문만이 거주하

20회 = 임시총회

지난 6월 11일 20여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서구 서대신동 꽃마을 소재 '나들목'에서 임시총회가 있었다. 장병호 회장은 유임되었고, 감사에 이실근 동기가 선출되었다.

어디서 무엇을?

<15회>
△ 박영길 = 6월 9일 모친상 △ 이추남 = 3월 1일 차남 결혼 △ 정준수 = 4월 30일 아들 결혼

<16회>
△ 송규정 = (주)윈스틸 창립40주년 기념 행사, 9월 9일 해운대 그랜드 호텔

<17회>
△ 황중부 = 8월 20일 장녀 결혼

<18회>
△ 박상욱 = 5월 28일 장남 결혼 △ 장기현 = 6월 4일 차녀 결혼 △ 최원일 = 4월 27일 부인상 △ 황명길 = 4월 13일 모친상

<19회>
△ 배무삼 = 5월 3일 ~ 6월 6일, 자연장연을 만드는 장인으로 정관 박물관에서 작품 전시회.

<20회>
△ 김두환 = 7월 30일 모친상 △ 김성환 = 8월 26일 모친상 △ 남몽해 = 6월 8일 모친상 △ 노기태 = 7월 1일 차남 결혼 △ 박상구 = 6월 18일 빙부상 △ 박현렬 = 5월 24일 모친상

△ 변기석 = 6월 18일 차녀 결혼 △ 손순룡 = 6월 11일 장남 결혼 △ 신원기 = 9월 19일 빙부상 △ 이영오 = 8월 20일 차녀 결혼 △ 고정희 = 6월 11일 딸 결혼 △ 표문배 = 5월 14일 아들 결혼

<23회>
△ 윤만수 = 7월 28일 모친상

<25회>
△ 권태진 = 8월 1일 모친상 △ 김기태 = 6월 4일 장녀 결혼 △ 김동한 = 6월 26일 장남 결혼 △ 김수민 = 6월 11일 장녀 결혼 △ 김열회 = 9월 4일 장남 결혼 △ 김일상 = 5월 28일 장녀 결혼 △ 김종만 = 10월 3일 장남 결혼 △ 김종배 = 5월 29일 차남 결혼 △ 김중철 = 7월 9일 차녀 결혼 △ 김찬규 = 7월 17일 장녀 결혼 △ 김충재 = 7월 17일 차녀 결혼 △ 김항열 = 7월 30일 빙모상 △ 박광용 = 7월 10일 장남 결혼 △ 박동현 = 5월 10일 빙부상 △ 손욱호 = 7월 11일 빙모상 △ 송기현 = 6월 5일 빙모상 △ 엄홍식 = 6월 26일 딸 결혼 △ 유봉식 = 7월 2일 장녀 결혼 △ 이규생 = 6월 18일 장녀 결혼 △ 이동익 = 6월 26일 장녀 결혼 △ 이상돈 = 6월 11일 장남 결혼 △ 이성호 = 8월 6일 모친상 △ 이충식 = 6월 11일 장남 결혼 △ 장선근 = 6월 19일

장녀 결혼 △ 장원용 = 5월 29일 빙모상 △ 정무동 = 5월 21일 장녀 결혼 △ 정성호 = 7월 23일 장녀 결혼 △ 제영성 = 9월 11일 장남 결혼 △ 조영석 = 7월 9일 차녀 결혼 △ 피중호 = 6월 11일 빙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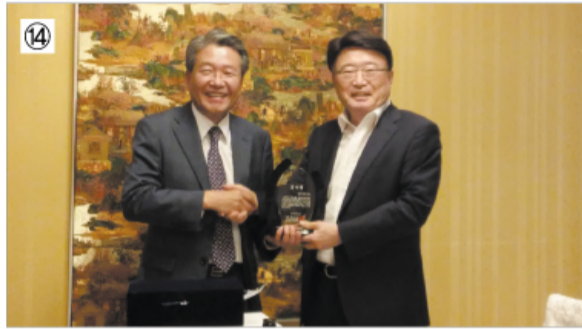
<26회>
△ 강영원 = 9월 24일 장남 결혼 △ 김영명 = 9월 10일 장녀 결혼 △ 박동현 = 5월 8일 빙부상 △ 엄운섭 = 9월 4일 아들 결혼 △ 이상원 = 5월 6일 모친상 △ 이유상 = 「종묘가는 길」 사진전 개최. 9월 3일~9월 9일 △ 이정석 = 9월 17일 빙부상

<27회>
△ 강성보 = 4월 30일 모친상 △ 강승호 = 6월 16일 모친상 △ 김재연 = 5월 2일 모친상 △ 김종철 = 6월 9일 부친상 △ 김항열 = 7월 28일 빙모상(26회와 동일인) △ 류한욱 = 5월 28일 모친상 △ 문두찬 = 7월 31일 빙모상 △ 박규욱 = 8월 8일 빙부상 △ 박종국 = 6월 20일 빙부상 △ 방문성 = 6월 27일 빙모상 △ 이기봉 = 10월 3일 딸 결혼 △ 이원철 = 8월 17일 모친상 △ 이원호 = 6월 25일 딸 결혼 △ 정정길 = 10월 3일 딸 결혼 △ 조용수 = 9월 11일 장녀 결혼 △ 최근수 = 10월 22일 장녀 결혼 △ 허 중 = 8월 29일 부친상

<8회>
△ 장혁표 = 전 부산대 총장. 삼수회(물처럼 바람처럼 10집 기념), 청소년교육문화재단 설립 16주년 기념. 「한국사회 무엇이 문제인가?(부제-어디로 가야하나)」심포지엄 개최. 일시 : 2016년 10월 19일 14시 장소 : 부산일보사 대강당

<9회>
△ 김경희 = 용마공영 대표이사 퇴임

<14회>
△ 강원수 = 6월 27일 부인상 △ 서부근 = 5월 7일 부인상 △ 최병태 = 9월 19일 빙모상 △ 한중문 = 6월 4일 모친상



①중부산동창회 ②김해동창회 바둑대회 ③김해동창회 월례회 ④창원동창회 ⑤18회 가을 야유회 ⑥20회 인사총회 ⑦24회 하계캠프 ⑧25회 정기총회 ⑨26회 한 마음축제 ⑩29회 바둑대회 ⑪용마산악회 경부합동산행 ⑫경북회 템플스테이 ⑬등대회 이사회 ⑭용마언론인클럽 ⑮우리들의 만남 ⑯경총회 정기총회

24회 = 용마24 하계캠프

지난 8월26일 1박2일 일정으로 서대신동 소재 구덕청소련수련관에서 6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2016년 용마24하계캠프를 열었다. 아영장에서 가진 연회에는 오성한 동기 부부가 기타, 섹스폰, 플루트 반주로 여행을 돌우었다. 회장:곽두희(한국증권거래소 사외이사)

가 동문들을 즐겁게 했다. 부산준비위원장 박재창, 서울준비위원장 현동우.

29회 = 바둑대회

지난 7월17일 서면 소재 '푸른기원'에서 동기회장배 바둑대회가 열었다. 회장:황맹균(부산자모병원 산부인과 원장)

지난 7월16일 3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모인 가운데 법계정사에서 정기법회를 가졌다. 또 경북회는 9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전남 구례군 소재 화엄사에서 템플스테이 행사를 진행했다. 회장:정영천(21회, 변호사)

용마산악회 = 경부합동산행

지난 6월12일 문경새재 마패봉 일대에서 30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합동산행 행사를 가졌다. 회장:남기태(31회, 토담건설(주) 대표이사)

등대회

지난 6월18일 40여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서구 서대신동 꽃마을에서 야유회를 즐겼다. 8월22일에는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용호동 쉼자리 '이가한우'에서 문재인 동문을 초청하여 이사회 및 간사회를 겸해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참석동문들은 최근 해운항만업계의 당면과제와 애로사항 등을 전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경총회 = 정기총회

지난 6월14일 '수정횃집'에서 경총회 정기총회가 있었다. 김경진(27회) 회장이 유임되었고, 간사장은 장정석(33회) 동문, 간사에는 성상기(47회) 동문과 성상용(47회) 동문이 선출되었다.

용마언론인클럽

지난 6월28일 남구 광안리 '방파제횃집'

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또한 8월23일에는 광안리 향태원에서 1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가지고, 회원들의 동향에 대한 소식을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최영식(29회) 회장은 '장기집권'으로 노고가 컸던 직전회장 이만수(28회) 동문과 직전총무 강병균(38회) 동문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했다.

우리들의 만남

지난 7월13일에 고래와 참치에서 20여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모임이 있었다.

26회 = 문경에서 '한마음축제'

해마다 경부합동산행 모임을 가져온 26회가 지난 8월27일 경북 문경에서 '26회 한마음축제'를 열었다. 모두 64명이 참가한 이번 축제는 등산(주출산) 이외에도 야구(경북관광), 골프(문경CC)에다 당구까지 망라한 1박2일간의 대형 이벤트로 꾸며 참

경북회 = 정기법회

<28회>

- △ 김정유 = 6월 25일 장남 결혼 △ 김치운 = 9월 25일 장남 결혼 △ 박광순 = 8월 21일 딸 결혼 △ 박석환 = 7월 16일 아들 결혼 △ 배선진 = 9월 10일 차남 결혼 △ 어정우 = 한의원 이전, 부산 중구 대청로 55. TEL : 051-245-1646 △ 오정완 = 6월 5일 빙모상 △ 이관선 = 9월 25일 아들 결혼 △ 이대권 = 7월 9일 아들 결혼 △ 이만재 = 7월 29일 부친상 △ 이상형 = 9월 3일 딸 결혼 △ 이수동 = 8월 31일 부친상 △ 전재만 = 9월 16일 모친상 △ 정영주 = 9월 3일 차녀 결혼 △ 제구환 = 6월 18일 아들 결혼 △ 차정인 = 8월 13일 장남 결혼 △ 최광해 = 10월 15일 장남 결혼 △ 최한웅 = 7월 23일 차남 결혼 △ 탁충배 = 6월 11일 아들 결혼

<29회>

- △ 김광근 = 6월 11일 차녀 결혼 △ 김대영 = 7월 26일 모친상 △ 김석윤 = 5월 29일 장남 결혼 △ 김영삼 = 5월 19일 빙모상 △ 김정규 = 9월 24일 장남 결혼 △ 김정상 = 9월 19일 빙모상 △ 김종진 = 5월 25일 빙부상 △ 김태수 = 6월 25일 빙부상 △ 문덕환 = 6월 9일 모친상 △ 민동식 = 6월 18일 장남 결혼 △ 박인균 = 6월 19일 장녀 결혼 △ 박창수 = 7월 18일 모친상 △ 양승룡 = 8월 2일 부친상

- △ 오덕현 = 7월 2일 장남 결혼 △ 윤항욱 = 7월 10일 장녀 결혼 △ 이문열 = 10월 8일 장남 결혼 △ 이윤상 = 9월 7일 빙부상 △ 이준환 = KCTC 대표이사 취임 △ 장현경 = 10월 15일 장남 결혼 △ 전장화 = 9월 25일 장남 결혼 △ 정대현 = 9월 3일 장남 결혼 △ 정영식 = 6월 5일 장남 결혼 △ 주용대 = 8월 21일 장녀 결혼 △ 최병오 = 7월 31일 빙모상 △ 최원락 = 10월 2일 딸 결혼 △ 황맹균 = 8월 6일 장남 결혼

<30회>

- △ 김성웅 = 6월 12일 장남 결혼 △ 김영호 = 6월 18일 장녀 결혼 △ 김재중 = 6월 18일 장남 결혼 △ 도문성 = 7월 4일 모친상 △ 문장호 = 5월 14일 빙모상 △ 박기형 = 5월 11일 모친상 △ 박동욱 = 9월 24일 장남 결혼 △ 박상국 = 6월 20일 빙부상 △ 박웅석 = 8월 2일 빙부상 △ 배기경 = 5월 20일 모친상 △ 신경호 = 8월 5일 부친상 △ 신교선 = 5월 21일 장남 결혼 △ 손영수 = 7월 5일 부친상 △ 옥유전 = 5월 28일 차남 결혼 △ 이동대 = 8월 20일 차녀 결혼 △ 장무상 = 7월 2일 장남 결혼 △ 장훈상 = 9월 18일 빙부상 △ 전대일 = 10월 8일 장녀 결혼 △ 전은석 = 7월 29일 빙모상 △ 조길래 = 5월 6일 빙모상 △ 조재우 = 5월 27일 부친상 △ 최석렬 = 8월

- 14일 장녀 결혼 △ 최진곤 = 9월 25일 장남 결혼 △ 하영동 = 9월 21일 빙부상 △ 한의녕 = 5월 28일 모친상 △ 홍철희 = 9월 25일 장남 결혼

<31회>

- △ 강도진 = 5월 18일 모친상 △ 김민수 = 6월 3일 빙부상 △ 김성구 = 5월 29일 장녀 결혼 △ 김진국 = 5월 28일 장녀 결혼 △ 김호성 = 5월 2일 모친상 △ 박종엽 = 5월 1일 모친상 △ 박종호 = 7월 9일 장녀 결혼 △ 심재홍 = 5월 15일 차녀 결혼 △ 장태영 = 5월 21일 빙모상 △ 정원재 = 6월 11일 장녀 결혼 △ 정인화 = 5월 21일 장남 결혼 △ 최병연 = 9월 14일 모친상

<32회>

- △ 류성렬 = 7월 5일 부친상

<33회>

- △ 이윤조 = 5월 29일 장녀 결혼

<34회>

- △ 김지홍 = 6월 25일 빙부상 △ 김현용 = 7월 21일 빙부상 △ 도영민 = 6월 11일 딸 결혼 △ 손병걸 = 6월 5일 부친상 △ 정성원 = 6월 29일 모친상 △ 정원일 = 8월 27일 부친상

<35회>

- △ 박세종 = 10월 1일 장녀 결혼 △ 장인화 = 9월 8일 부친상

<37회>

- △ 허부남 = 7월 31일 빙부상

<40회>

- △ 정홍승 = 9월 17일 부친상

<41회>

- △ 방성운 = 6월 18일 빙부상 △ 박용진 = 6월 5일 빙모상 △ 김진호 = 8월 21일 모친상

<42회>

- △ 옥동석 = 최연혜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

<43회>

- △ 김동민, 정재욱, 조성호 = 「힘찬 민물장어」개업. TEL : 051-862-9289 부산시 진구 양정동 147-11(시청 옆 부산교용센터 맞은편)

남기주지역동창회(A지역) 110만원

32외(8명) 김희철 문병집 송두호 윤태윤 이 경 이안규 하덕모
42외(11명) 김경식 김기홍 김희수 박석민 양종하 이남규 장수호 정순도 정치근 조성일 황갑성
52외(17명) 김근석 김석호 김인택 김재관 김진후 박장후 박종구 박종상 사기훈 이문기 임성업 정진조 정진우 진도영 최영철 최원구 홍관식
62외(27명) 강동숙 강진형 김상업 김용영 김중철 김태근 김태환 배문수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연희성 오영은 유상환 이강훈 이길상 이상기 임경택 정건용 정경규 정택환 정승화 조운승 최갑영 최석원 최한병 허광필
72외(31명) 강병희 강창구 구택용 김갑성 김광옥 김명관 김삼현 김용우 김중순 김태태 노상석 류상남 박세량 박영실 박재봉 박원배 배중현 소진은 송외득 양종만 오동환 오장은 윤관선 윤진현 이동우 이창범 임성규 임의택 정보영 조덕찬 황홍주
82외(28명) 강성태 구분식 김영철 김영환 김재범 김진석 김형복 문창화 박우상 박재범 박희욱 배기원 배주원 서진근 안종철 엄덕양 이윤조 이종택 이준혁 이준기 이호수 이희순 전영태 조운제 최윤식 최재혁 홍광수 홍기성
92외(32명) 김경희 김성택 김영문 김이도 김중호 김중호 김지연 김 청 노도현 박당희 박화철 설희규 신석현 안규현 안병환 원중희 유금열 유병철 윤성태 윤일영 이주한 장동근 전인규 정 특 조규양 조이호 지삼봉 최성호 최위철 한동태 한두수 허남수
102외(43명) 고광수 김기호 김민희 김상규 김선동 김성규 김연수 김재곤 김창덕 박철민 배길순 신규태 오갑욱 윤부환 윤재모 이계창 이근태 이민철 이봉원 이상배 이상영 이상준 이인희 이재순 이정호 이현수 임정우 장기상 장형규 전영태 정 훈 정무길 정종만 조길수 조상진 조재경 조종제 진 강 차동렬 최병도 최성일 최영택 최영오
112외(66명) 강병희 공상기 광정출 광태업 권병용 김기주 김삼진 김성규 김수정 김영식 김옥실 김용정 김윤택 김인철 김재환 김중하 김태호 김학수 김항근 김효민 박관호 박수경 박용관 박종환 박창순 박태오 박희태 백근덕 서영호 서지윤 서진갑 성기득 신유기 신현석 심재룡 연한호 오갑훈 오정광 유희중 윤재관 윤태원 이강우 이계찬 이근우이 명 이병태 이상석 이상태 이상학 이상길 이상영 이종백 이종범 이태순 장대철 장세원 장영근 정운표 제정오 조동준 지창호 천근준 최동문 최두호 최성욱 현정준 (박인태 2018년)
122외(63명) 강본순 공 문 구황희 권시길 김기수 김기인 김두수 김복성 김봉하 김부생 김부환 김상철 김석근 김선일 김수인 김영수 김우성 김종현 김종일 김지희 김철기 김현주 문재권 박문기 박영환 박정윤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종실 변동만 서병기 손재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배 안용득 엄태실 오세정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상태 이수열 이숙태 이윤연 이원우 이재원 이준복 이현달 장동석 장광삼 정대식 정수복 정영철 정희철 정호중 조한기 차인도 천근태 허은도 홍두표 홍홍하
132외(91명) 강귀봉 고송구 고시준 구덕진 구문경 권영계 권영재 김동호 김부조 김상지 김성태 김신부 김영길 김정규 김정일 김정태 김중박 김중희 김지득 김한규 김형태 김홍식 김홍철 문 창 박건일 박길민 박인남 박영주 박원길 박일용 박정용 박종택 박진태 박홍일 박홍표 배대길 배정은 서시주 서영운 송신의 송창식 신동태 신동진 신 명 신민철 신하근 심영수 안준수 양길승 오원수 윤기갑 윤태호 이정재 이근모 이명진 이상문 이상민 이상재 이상열 이준범 이상철 이상영 이상호 이철세 임소철 임영홍 장용용 정도삼 정문화 정연호 정영화 정은실 정종현 조병성 조종갑 조준택 조현철 조현일 최원일 최상호 최성호 최영관 최태환 추지석 한병우 한병조 한진철 허갑도 허 훈 황일인 황정태 (이영재 2019년)
142외(63명) 권 명 김도선 김동화 김무남 김무용 김재도 김창기 김형수 김희우 남기우 노수덕 류홍일 문운용 박남조 박인인 박병선 박순일 박진재 박철수 배남순 배종현 배태우 서정환 손광웅 손영택 신기석 신용진 신준호 오태홍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연 이광우 이길미 이명재 이수남 이진우 이호근 이훈일 장우일 전상배 정선인 정용마 조광명 조규환 조상원 조영봉 조정현 진선태 진성태 최낙실 최병태 최승용 최종락 하광진 하문수 하찬봉 허 증 황인재 황준성 황홍석 (서정환 2017년)
152외(77명) 강무상 강부승 강민조 강부봉 강정일 관승부 김경일 김길영 김보범 김대영 김소현 김성일 김연훈 김옥규 김용재 김정규 김정환 김중태 김중환 김중광 김중식 김관일 김형영 남기주 명호근 박복만 박세갑 박영길 박영무 박종석 박찬오 박호가 배성훈 배 훈 서영진 손부홍 신용기 안경숙 오봉식 윤우경 윤취정 이선공 이승남 이승우 이영정 이의일 이정부 이종범 이종우 이 준 이철성 임영길 장종호 장호조 정동포 정옥중 정준수 정행남 조규중 조영일 조일광 조진환 주정중 최광웅 최병우 최 욱 최원수 최진도 최영수 최정부 한진철 한경도 허광길 허중덕 허 통 홍익찬 황중부 (임영길 2022년)
162외(68명) 강동관 강상권 강영주 강원경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복술 김덕찬 김두용 김양화 김용환 김용진 김정우 김 조 김종덕 김진문 김중길 김형석 노원소 민신은 박두영 박영기 박영수 박정욱 박종범 박종영 박춘오 박 흥 배정희 서정호 성기식 성진호 송승방 송규정 송지우 안국정 여성규 오영철 윤호주

이규방 이길홍 이무근 이두영 이상남 이상인 이상근 이영재 이정성 이종승 이재연 이창현 임승연 임 실 정영일 정우광 정원철 정일성 조금일 조길우 조운일 조원태 지수신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한일량 황규호
172외(58명) 감정은 권경술 김동조 김부근 김성락 김용규 김용남 김용정 김재봉 김준연 김준희 김중석 김지창 김정은 김중경 노동성 박기식 박신도 박영일 박영호 박인사 박재구 박 찬 박홍식 서정승 서창석 송승구 송유근 송인문 송인창 신 종 신희규 어윤태 오진식 우기남 이세복 이수창 이재형 이정보 임우택 장길성 장승구 장호남 전경명 정량부 정병렬 정영희 정용화 정태일 정형근 제양성 조준연 천용광 최성호 추병실 하영수 허진행 황성진
182외(82명) 강덕용 강남수 강성태 강영호 강인철 강정일 고병현 구영근 김경길 김경연 김경화 김광용 김귀연 김기섭 김길재 김병태 김사권 김성건 김성수 김성준 김순근 김영국 김옥길 김재창 김장래 김중상 김중철 김지호 김형용 노정규 류종우 박근태 박기일 박기주 박노숙 박동우 박상욱 박선동 박영일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종구 박종만 박준성 박호성 백승태 서부원 서재봉 서차수 손찬규 신인환 안창범 오재동 원우호 윤봉수 이금희 이대운 이상준 이종남 이형석 이호국 임재영 전병희 전상근 전영석 정구홍 정우용 정재호 정태식 조성재 최영용 주상선 채부영 천두갑 최진수 최희영 허만조 허성태 허영태 홍정표 황광진 (김영운, 박기주 2017년)
192외(86명) 강동완 강영범 강준권 강환식 권정덕 김경우 김경재 김덕규 김명수 김봉호 김석규 김성욱 김순호 김영우 김영택 김인선 김재근 김정우 김중우 김진국 김진호 김철호 김행복 남진현 남태현 노덕현 노태규 문두영 박갑진 박동화 박상식 박상택 박준우 박차현 서세복 서승성 성환진 손철수 신광수 신동인 신윤철 안정오 오태수 무문환 윤수상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규 이상만 이상우 이상달 이상환 이용조 이용홍 이용훈 이상화 이종범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홍 이춘만 임우근 임재원 장성규 장홍의 전영석 전윤경 정규병 정규영 정극수 정원진 정태를 조성환 조재영 진수상 최경석 최정화 최희의 한명실 한준희 함진복 허남길 황태경 황태원

김정복 김종훈 김종광 김태용 김태정 문규철 문명옥 문영신 박동현 박두열 박수갑 박익상 박인권 박준석 배준석 사승환 손근식 신경재 신상희 신근호 신해철 심수병 안범두 안병용 안성민 양희택 유석산 유원형 유진우 윤길원 윤순현 윤종관 이강식 이덕남 이동성 이봉희 이백기 이병찬 이상렬 이상수 이수백 이승현 이재재 이용원 이윤석 이정욱 이종현 이호호 장백기 장병규 전동환 전상태 전원익 전재홍 정기홍 정상건 정용호 조만석 조장태 조한용 채영운 최영택 허복진 허근창 허병상 허연욱 홍종기
242외(99명) 강기중 강동우 강용중 광두희 광재용 구분열 권영기 김경남 김도인 김동윤 김동진 김병태 김봉용 김성득 김승택 김명민 김영식 김윤수 김인철 김준기 김진윤 김학석 김현태 남진현 남창영 노동용 노상우 박근철 박근태 박영표 박윤석 박윤성 박재선 박정문 박창중 박창호 박홍규 배종갑 백은림 반용준 변정규 서정덕 석문식 송창기 송성호 손세영 손인수 손종식 신병식 신장우 안형모 안형수 안순권 여옥주 여철우 오수복 우홍하 원동희 윤석만 윤재인 윤종철 윤지현 이종진 이병규 이상학 이 수이영준 이영태 이정희 이종구 이현국 이호구 임민호 장성기 장세호 장인복 장현동 전대현 전운우 정명근 정명동 조백민 조영수 조용화 조재진 주승환 주정규 지인덕 차문공 최석규 최원주 최진우 최현규 대창일 하진태 한상렬 허구연 홍홍기 황규선
252외(78명) 고명식 권수갑 권건우 김경환 김광배 김구화 김대현 김덕우 김동진 김문규 김성철 김상수 김상필 김성환 김수근 김수룡 김수석 김영호 김옥연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원욱 김윤수 김익수 김인철 김정화 김중만 김중현 김창수 김태선 박경립 박영우 박세철 박영하 박종기 박종찬 박호철 서병수 서재규 석창재 송세경 송희상 신경화 신영우 안희석 양승욱 엄수훈 예종복 유진태 유용기 이근관 이대우 이병철 이수영 이승욱 이윤택 이진형 이창윤 이홍석 이홍이 임상택 전선태 정무동 정신배 정철수 조경일 조 익 조판재 주재걸 최동하 최태동 탁준길 태명산 하성룡 한준석 허영철 허 택
262외(64명) 감도식 감수남 감영태 고석훈 권해국 김경철 김기표 김대규 김두현 김상현 김수인 김영철 김재용 김정원 김중수 김중우

정희용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조한욱 주재휘 차의수 최기훈 최병오 최정만 최정열 한만수 한승경 현계성 현승렬 황영균 황유명 (서정호 2017년)
302외(88명) 강석철 구을석 권용택 김경수 김관일 김기수 김기업 김백수 김영옥 김영일 김영주 김기수 김인철 김재수 김재일 김중진 김진영 김해근 김현태 노동성 도문성 박규환 박원호 박인달 박중태 박천민 박철우 박희관 배경조 배승환 백기연 서강태 서민석 서복현 서하수 성낙도 신교선 신규환 신윤원 신인기 오경일 오홍조 옥유진 유재일 윤기송 윤태일 윤종순 은창용 이기환 이대근 이명근 이성이 이수성 이인호 이종훈 이진걸 이철호 이태봉 이희수 이현수 인준승 장호영 장홍상 전은석 전준호 정경덕 정광덕 정규용 정부광 정성원 정순진 정영호 정태환 정해근 조동호 조순영 조재성 채영관 최병태 최우철 최 욱 최정은 최진근 허규광 허영동 하재홍 한홍용 황철민 (김영일 2017년)
312외(49명) 공종렬 김 만 김명우 김시현 김영철 김중호 김태근 김호성 김효연 남기태 남철우 문성일 민종현 박경수 박세환 박인 정 박종규 박준호 박준석 박준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배 정우 서정호 손영태 손은정 신상하 심재구 안중수 오민일 오용환 옥치호 윤석중 이병태 이상일 이승진 이원태 임종태 조성근 조영기 전창호 최부영 최인목 최희석 최진섭 최해영 허명수 허병관
322외(28명) 강기상 김영길 김중식 김중만 마승철 박상학 박성철 박종구 박진원 손병철 송승익 신국선 신철호 양문성 오경명 우득현 이문영 이병훈 이상훈 이재수 이원용 임재국 정성수 정용운 정의주 최승찬 최준호 황관민 (송승익 2019년)
332외(36명) 공진환 권영식 김기산 김명환 김범영 김원일 김재선 김종만 김 철 노경호 박경진 박종은 배성만 배수현 서광기 서재영 송성립 송재봉 신용준 안동문 안영훈 예영찬 오형선 이동근 이윤조 이정호 이진우 이형근 이호인 조석환 주기훈 지창근 최동호 최성현 최용남 최홍민
342외(25명) 관수근 김동욱 김범서 김상환 김승범 김중근 김태하 김희영 노인선 도영민 박재욱 박철용 이상은 이재완 이준권 이진호 정노혁 정성근 정태태 조문규 조 선 조시형 진양호 태일산 황경조
352외(27명) 김관우 김기철 김동일 김우경 김우신 김주현 김태근 박찬익 박창석 성규원 성창용 안종철 안창돈 오시영 이기석 이남기 이종찬 이희석 장인화 전래진 정효영 조홍식 지대경 진호준 현천석 최기평 황홍순
362외(25명) 김관용 강현철 김정현 김중오 김종일 김창일 김한고 박영준 박영찬 박용철 박철종 방진영 서광원 신용득 윤용수 이상근 이원석 이정영 이희수 임서룡 임창설 지동성 채현철 최성필 홍의창
372외(27명) 권희석 김성현 김영근 김영태 김원범 김중휘 김준오 김학기 문진형 박만규 박용진 성창수 송경철 신우진 유호섭 이상백 이주홍 이호진 장원익 전인수 조상현 조성국 탁나준 허병혁 허부남 홍병일 황태윤
382외(24명) 광동일 김기현 김문철 김석규 김영길 김원철 김관준 류인식 문익현 박인철 박준표 심 춘 안길수 오희진 유관재 윤경만 이동훈 이종명 이현국 정인철 조석태 조용철 차성철 채주홍
392외(18명) 광기영 김도경 김병기 김용희 김원철 김해수 노성수 박준근 박훈민 배효민 심양선 안영준 오선호 윤원욱 정용국 정진해 최정현 (오선호 2017년)
402외(24명) 강창지 권병서 김경환 김성진 김중철 김준환 문태열 박무성 박상범 박순환 박영근 박재현 배병훈 배영진 신상통 심 철 옥진형 우영환 이 기이영철 이정삼 임태영 장갑구 장명태 (김종철 2017년)
412외(11명) 강서희 김형철 박상환 박정희 양력호 이경호 이수영 이상걸 이종민 임병호 천성원
422외(6명) 김재용 김태구 박동식 신동복 정홍준 제정환
432외(9명) 강방규 김종식 문기덕 윤성욱 이승훈 이승택 이용상 이호영 전세준
442외(7명) 김동욱 배봉진 서영민 이동렬 임정훈 조영호 허태욱
452외(8명) 김상수 김태우 김현호 박상화 박 용 장성희 진상영 최재영
462외(7명) 권성기 김동희 이상민 이주용 정영석 한영길 황상철 (권성기 2018년, 이상민 2019년, 민영길 2022년)
472외(1명) 성상용
492외(3명) 김학관 장민근 조영철
502외(3명) 강 철 박종현 박현욱
512외(2명) 박길호 정진우
522외(1명) 김상근
542외(1명) 김희수
552외(1명) 최병준
652외(1명) 최성원
662외(1명) 김시준
672외(1명) 황기광
692외(1명) 정우기 (2023년)
 경고학교운영위원회 등(1명) 주자중(2017년) 기수 & 이름 확인불명 23명

동창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신 동문들의 이름을 적을 자리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좋다! 일흔다섯까지 야구하자!”

후라회 40년... 구본준 LG 구단주 여자 후라야구단 창단



LG트윈스 구단주인 구본준 동문(사진 흰 유니폼)은 재경 24회 동기회 야구팀의 감독이자 투수이다. 10년 전 “한갑 때까지 야구하자”고 했던 구본준 동문이 이번에는 “일흔다섯 살까지 야구하자”고 권고했다.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의 활약상에 힘입어 한국야구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 밝게 보인다. 태평양 건너에서 날린 이대호의 한방에 부산갈매기들이 들쭉인다. 정말 한국야구의 미래는 장밋빛일까?

최고 이론가이자 정책가인 허구연(24회) 동문이면 조목조목 빛과 그림자를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KBO 총재 구본능(21회) 동문에게 물어 볼 수 있겠다. 그 역시 상당한 기획가이다.

한 사람이 더 있다. 구본능 총재의 동생인 구본준(24회) 동문이다. LG전자 부회장에서 신성장사업단장으로 옮긴 구본준 동문은 LG트윈스 구단주이고, 한국여자야구의 대부이자 막강한 후견인이다.

지난 9월 부산 기장군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개막된 세계여자야구월드컵을 유치하고 후견한 주인공도 구본준 동문이다. 대회의 우승 징표가 ‘LG배’이고 LG전자와 LG생활건강이 스폰서이다.

최우수 투수상 받은 ‘아리랑 볼’

구본준 동문이 지난 9월4일 서울 동기와 구덕야구장에 나타났다. LG 구단주가 구덕야구장에는 왜? 후라회 야구단 창단 40주년 기념 경부 천선경기를 즐기 위해서다. HURRAH는 24회 동기 야구팀의 이름이다.

그는 서울후라팀의 감독 겸 투수이다. 지난해 재경 기념야구대회에서 최우수 투수상을 받으며 24회 우승을 견인한 바 있다. 그는 ‘아리랑 볼’이라고 일컫는 자신만의 구종도 보유하고 있다. 일종의 체인지업인데, 허를 찌르는 직구를 섞어 던짐으로써 골잘 타자를 교란시킨다.

그래서인지, 그가 LG트윈스 구단주 자리를 내놓을지언정 서울후라팀 감독 겸 투수는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후라야구단은 해마다 가을이면 서울과 부산을 번갈아 가며 천선경기를 열고 우애를 다진다. 24회는 재경 기념대회에서 13회나 우승함으로써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다. 본부 기념대회에서도 24회는 6회 우승으로 역시 최다 기록을 세웠다. 후라회 40년 관록이 빛은 대기록이다.

서울후라는 재경 야구대회에 참가하는 최고령 기수가 되었다. 부산후라도 19회 다음가는 고참이다. 10년 전, 후라회 창단 30주년 기념경기에서 구본준 동문이 “우리 한갑까지 야구하자”라고 자신 있게 제의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은 “설마?” 하면서 끈이들 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 목표치를 다시 바꾸었다.

“그래 좋다! 우리 일흔다섯 때까지 야구하자! 몸 관리나 잘하자. 내가 이천 LG야구장에 확실하게 준비해 놓을 테니.”

“우리가 못하면 여자후라가 대신할 것”

부산에 오면서 구본준 동문이 대동한 야구팀이 또 있다. 아마존 군단, 여자후라회 멤버들이다. 2014년 12월 그가 주도해서 창단했는데, 내심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우선은 여자야구계의 대부인 그가 직접 관리해서 세계 최강의 여자야구팀으로 키우는 것이다. 그 다음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다. 서울후라의 연습 상대로 활용함으로써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아니겠느냐”는 것. 중학생 선수들은 아무래도 상대하기가 버겁고, 그렇다고 초등학교들과 게임을 하자니 남세스럽고 해서 궁리 끝에 찾아낸 묘책이 여자후라팀 창단이였다.

인터넷과 알음알음으로 모집한 70여명 가운데 한달간의 테스트를 통해 27명을 선발했다. 현역 장교를 비롯해서 교사, 경찰, 사무직원, 자영업체 사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군의 용병들인데, 현역 공군 대위인 김윤경 씨가 주장을 맡고 있다. 아이 엄마도 몇이나 된다.

왕년의 강타자 오기봉(24회) 동문에 이어 투수 출신인 이종구(24회) 동문이 감독으로 아마존 용병들을 조련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수요일 야간연습까지 ‘아마존 구단’ 치고는 꽤 강행군이다. 김윤경 주장은 “배우는 게 많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특히, 후라회 역사가 자신의 인생보다 더 길다는 것에 놀라면서 “경남중고의 전통을 보았다. 우리도 늙으면 후배들에게 용마들처럼 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후라회가 75세까지 야구를 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비록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구본준 동문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이상 야구장에서 뛸 수가 없을 때, 여자후라가 후라회 유니폼을 입고 우리를 대신할 것이다.”

모교 선수 3명 프로 입단

이승호 KIA 타이거즈 · 손주영 LG 트윈스 · 문상인 kt 윈즈



이승호 투수



손주영 투수



문상인 포수

모교를 졸업하는 후배 세 명이 프로구단에 입단했다. 이승호(KIA 타이거즈) 손주영(LG 트윈스) 문상인(kt 윈즈)이 그들이다. 손주영과 이승호는 ‘경남고 원투펀치’로 일컬어지며, 명실공히 고교 정상에 오른 명성을 날렸다. 포수 문상인은 모교 1학년 때부터 마스크를 쓰기도 했던 탁월한 기량의 주인공이다.

투수 손주영은 당초 10개 구단 스카우트들 가운데 9명이 넘버1으로 뽑은 유망주. 191cm의 장신에 최고 구속 146km의 빠른 공을 던지는 좌완 파이어볼러로 꼽히며 좋은 제구력과 대담한 경기운영 능력까지 겸비했다는 찬사를 받는다.

손주영 선수는 “그동안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면서 “명문 LG에서 뛰게 되어 영광이고, 변화구 구사능력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더 좋은 투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고교 유망주들을 뽑았지만 재미를 못 본 LG는 손주영이 그 갈증을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졸 신인 가운데 입지감치 상위 지명 대상으로 꼽힌 이승호는 모교 야구부 주장으

로 활약했다. 신장 187cm, 체중 88kg의 당당한 신체조건을 가진 이승호는 변화구가 주무기이다. 슬라이드와 커브에 서클 체인지업까지 구사해 경기당 평균 10개 안팎의 삼진을 잡아냈다.

이승호 선수는 “예전부터 좌완투수가 많지 않은 KIA 입단을 목표로 두고 있었다”고 털어놓고 “양현종 투수를 몰 모델로 삼아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면서 벌써 선발투수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상인 포수는 1학년 때, 3학년 주전포수가 실책을 범하자 즉각 투입될 만큼 될성부른 나무로 꼽혔다. 보수적인 모교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투수 리드, 블로킹, 포구, 인사이드 워, 송구에 이르기까지 나무랄 데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롯데기야구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을 만큼 타격에도 뛰어났다.

그래서 부산갈매기들은 ‘제2의 강민호’로 지목했으나 케이티 윈즈에 드래프트되었다. 올해 KBO 신인 드래프트에는 고졸 예정자 692명을 포함해 모두 938명이 참가했다.

동해가 일본해라고? 일본 꽃릴 회심의 카드

3년 걸친 <일본 애국행진곡 연구> 매듭지은 박기용 동문

지난 2012년 어느 봄날, 그는 미뤄 놓았던 선친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기타를 배우고, 대중가요에 심취했던 아버지는 꽤 많은 음반과 유명 작곡가들의 작곡집 등을 소장했다.

그런데 유품 가운데 무심코 펼친 <朴是春 卍타-作曲集>이 그를 뜻밖의 세상으로 인도할 줄은 아마 짐작조차 못했을 터이다. 그는 들머리에 실린 악보에서 눈에 익은 漢字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다. 박시춘 작곡집은 소화 14년, 곧 강제징병과 전시동원체제가 본격화되던 1939년에 출판된 것인데, 그를 놀라게 한 노래가 바로 <愛國行進曲>이었다. 박시춘의 작품이 아님을 물론이다.

“작사-작곡가 이름은 없고, 그 대신에 ‘內閣情報部 選定’이라는 글귀를 새긴 <애국행진곡> 가사 앞부분에 적힌 ‘東海’라는 글자가 내 눈에 날아와 박혔다. 혹시 일본 사람들도 우리 동해를 ‘東海’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보라, 東海의 하늘이 밝아와 旭日이 높게 빛나면...”으로 시작하는 <애국행진곡> 가사에서 발견한 ‘동해’의 실체를 규명하는 탐사 작업은 3년이 흘러 지난해에 일단락되었다. 박기용 동문의 논문 <일본 애국행진곡의 ‘동해’에 관한 연구>가 한국수목학회지에 수록된 것이다.

해프닝으로 시작한 ‘동해’ 연구 3년

4년 전의 일이다. 입제강점기 한일 관계사 권위자인 부산대 김문길 명예교수의 자문을 받아 박 동문이 2012년 5월에 전격적으로 공개한 <애국행진곡>의 ‘동해’는 당시 여러 매체에 특필되었고, 누리꾼들의 지원사격도 쏟아졌다.

그러자 박 동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도 곧바로 튀어나왔다. 한양대 윤아무개 교수가 “가사에 나오는 ‘동해’는 ‘일본해’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해가 뜨는 동쪽, 곧 ‘태평양’을 지칭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노랫말 가운데 우연하게 발견한 ‘동해’를 둘러싼 지명 논쟁은 박 동문의 재반박에 윤 교수의 재재반박으로 이어졌다.

끝장을 보겠다며 매달렸다. 그는 1937년 일본 내각정보부가 발간한 주보 제56호에



박기용 동문(오른쪽 사진)은 4년 전 선친(왼쪽 사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박시춘 卍타-작곡집)에서 발견한 (애국행진곡) 가사에 등장하는 ‘동해’가 우리의 동해와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3년 동안 역사탐사를 벌였다.



서 문제의 <애국행진곡>은 일본 정부가 중국 대륙경역을 도모할 속셈으로 현상 모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본열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대만, 만주 등지에서 응모한 5만7천여 편의 응모작 가운데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초에 살았던 인쇄업자 모리카와 유키오의 작품이 당선되었으며, 작곡자는 일본 해군음악대장을 지낸 세키쿠치 도키치라는 사실을 찾아냈다.

그런 가운데 뜻밖의 소득이 그를 ‘동해’에 빠뜨렸다. 일본에는 일본열도의 서쪽 해안, 곧 우리 동해에서 해가 뜨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나 있다는 것. 더구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작사자 모리카와가 살았던 돗토리현이며, 사카이 미나토는 이

름난 일출 경승지로서 최근에는 한국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다.

작사자 모리카와가 찬탄해 마지않은 ‘동해’가 ‘태평양’이라는 주장이 성립하기 곤란한 또 다른 정황도 확인되었다. 돗토리현을 직접 방문한 김문길 교수가 “동해에서 해가 뜨며, 요즈음도 새해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동해(독도 쪽)에 해맞이를 간다”는 현지 주민들의 확인서를 받아온 것이다.

‘일본해’ 단독 표기 반박할 좋은 사료

박기용 동문이 인용한 오무라 고우치의 <철저검정 일본의 군가-전쟁시대의 음악>도 역설적이지만, ‘태평양’과 ‘동해’를 동일시하는 주장의 취약성을 반증한다.

“오무라는 소위 전시음악의 대가이다. 오무라는 일본 정부가 국민정신 총동원운동의 일환으로 <애국행진곡>을 현상 모집했으며, 가사는 아름답고 명확하고 용기 있는 행진곡으로서 참모습을 노래하여 제국의 영원한 생명과 이상을 상징하고 국민정신에 맞는 내용이어야 했다고 기술했다.”

“오무라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참모습인 풍경, 자연 그대로를 보고 느끼고 지은 가사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작사자가 살았던 돗토리현 사카이초의 아침해는 독도가 가까운 동해에서 뜨는 태양이다. 작사자는 그 풍경 그대로를 노랫말로 묘사한 것이지, 자신이 사는 곳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태평양을 상상하여 임의로 ‘동해’로 바꾸어 지은

가사가 아니라는 것은, 엄격한 가사규정이 반증하고 있다.”

“일본 고지도들은 태평양을 대동양, 대일본해, 태평해로 표기하다가 1927년 이후 태평양으로 단독 표기했다. 특히 <애국행진곡>을 공모한 2년 뒤, 일본 정부는 또다시 공모를 통해 <태평양행진곡>이라는 전시가요를 보급했다. 엄연히 존재하는 명칭을 제쳐 두고, 태평양을 ‘동해’로 지칭할 까닭이 없다. 일본 고지도에 등장하는 ‘동해’는 샌다이 근해를 가리키는 것이 유일하다.”

요컨대, 박기용 동문의 주장은 대강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애국’이라는 엄중한 명칭을 달고 있고, 까다로운 가사 규정에 비추어보면, 작사가 모리카와가 ‘동해’를 두루뭉술하게 ‘보통명사’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우선 가능하다. 그래서 일본열도 동쪽 바다를 지칭하려 했다면 ‘대동양’ ‘태평해’ 또는 ‘태평양’이라는 ‘고유명사’를 기피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부산MBC 전속가수 오디션 참가하기도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시작된 박기용 동문의 탐사 작업이 주목을 끄는 까닭은 내년에 열리는 국제수목기구(IHO) 총회에 서 한일 양국이 동해 명칭을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는 박 동문의 논문을 주요 사료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문단에서 수필가로 활동하는 박 동문은 2014년에 출간된 베스트셀러 <애견속 인생 이야기>의 저자이다. 애견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다룬 이 저술은 그가 20년간 동물병원을 겸한 애견센터를 운영하며 보고 느낀 것들을 엮은, 다소 유별난 수필집이다. 그는 요즈음 내년에 출판할 원고를 다듬고 있다.

그는 3년 전부터 기타를 배우며 동료들과 재능기부 공연활동도 펼치고 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그도 한때는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 모창 콩쿠르에 나가 꽤 괜찮은 상을 받았고, 부산문화방송 전속가수 선발 오디션에 참가하기도 했다. 일흔 중반에 이르러 부쩍 ‘아버지의 아들임’을 자주 떠올린다고 했다.



2016 용마의 밤

- ▣ 일 시 : 2016년 12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 ▣ 장 소 : 경남중학교(강당) ▣ 참석대상 : 전 동문

“용마인이 하나 되는 그날,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기수별, 지역·직능·동호회, 개인별 많은 협찬 부탁드립니다.

(접수처 : 본부동창회 051-245-7551~3)

“창의성은 튼튼한 기초, 자유로운 의심에서 나온다”

과학철학 석학 김유신 동문, 한림원탁토론회 ‘융합교육’ 발표

콜럼부스는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했고, 이순신 장군은 1592년에 터진 임진왜란의 영웅이 되었다. 그런데, 100년이라는 시간의 격차,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적 차이를 뛰어넘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다면 곧 이들을 수 있을까?

인문학자 김경집은 저서 <생각의 융합>에서 두 사람은 조우했다고 주장한다. 만남을 매개한 것은 일본 큐슈로 표류한 포르투갈 사람의 총이고, 무한한 추상력과 입체적 사고력을 통하면 그 만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들어서 융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부산대 교수 김유신(24회) 동문이 지난 8월 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한림원탁토론회에서 ‘융합교육과 창의적 사고’를 주제로 융합의 언어적 의미와 창의성의 개념, 융합교육과 창의성에 대해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과학기술계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된 한림원은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과학기술 진



김유신 동문의 제자들은 그가 '학문적으로 예리하고 탁월하며,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라 말했다.



흥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펼치는 법정 학술 단체이다. 김유신 동문은 18명으로 구성된 한림원 정책학부 정회원이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융합은 convergence, fusion, integration, 세 단어로 나타낼 수 있다. convergence는 공간적인 면을, fusion은 제어 체계의 측면을, integration은 이론의 연합을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이론의 연합'은 개별 이론의 존재를 토대한 결합을 의미

하며,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이론을 수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창의성은 튼튼한 기초를 토대로 자유롭게 의심하는 데에서 길러진다. 이때 자유롭게 의심하는 것은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새로운 사고에는 언어를 통한 은유가 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한계점도 가지기 때문에 추상력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고, 이러한 추상적 사고에는 튼

튼한 기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융합교육은 융합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개별 교과를 바탕으로 다룬 교과의 시각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융합적 교육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해당 교과역의 역사성과 외부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며, 따라서 융합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교수는 이를 깊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온 김유신 동문은 미국 버클리대에서 석사, 스탠포드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 과학기술학을 개척하고 공학윤리를 최초로 소개한 그는 한국과학철학회 회장과 국제전기통신 아태지역 최고위 교육과정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동양철학적 요소와도 닿아 있고, 학문적으로 난해한 분야로 꼽히는 <양자역학의 역사와 철학>이라는 학술서를 국내 처음으로 출판해 이목을 끌었다. 김 교수의 인문학도 제자들은 “학문적으로 예리하고 탁월하며, 사회정의에 관심이 깊은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라고 했다.

“정년퇴임 후의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자식들이 사는 미국에나 가서 책상물림 할까 보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우리는 여태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것일까.

디지털 신기술 ‘스마트 나비’ 세계 최초 공개

김진철 동문, 국제학술대회 개최, (주)디오 위상 수직 상승

(주)디오 회장 김진철(25회) 동문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유일의 디지털치의학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디오의 국제적 위상을 성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철 동문은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누리마루 APEC하우스, 백스코 오디오토리움,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제9회 디오 인터내셔널미팅(DIO)과 제2회 국제디지털치의학학회 학술대회(IADDM)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스위스, 이탈리아 등 30여개 나라의 석학들과 치의학 전문가 7백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개최해 온 DIO는 국내 최대 국제치의학 심포지엄인데, 김진철 동문은 이번 미팅에서 디지털 임플란트 어시스트 로봇 플랫폼인 ‘스마트 나비’



김진철 동문은 제2회 국제디지털치의학학회 학술대회가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열린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를 최초로 공개, 시연해 참석자들의 비상한 관심과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또한 내로라하는 국내외 치의학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연도 펼쳐졌다.

특히, 김진철 동문은 개막식 연설에서 DIO가 부산에서 처음 열리고, IADDM과 동시 개최된 사실을 강조하며, ‘my hometown city of busan’을 방문한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이번에 세계 최초로 공개한 ‘스마트 나비’는 종래의 ‘디오나비’ 솔루션을 월등히 능가하는 로봇 플랫폼으로서 화면과 음성을 통해 시술 과정을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부비동과 같이 10여 개의 드릴을 사용해야 하는 복잡한 시술의 경우, ‘스마트 나비’는 사용할 드릴의 순서는 물론이고 얼마의 회전력으로 얼마의 깊이까지 드릴링 해야 하는지 안내해 준다. 임플란트 시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환자 고통 완화, 시술시간 단축, 시술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후발 효과를 생산하는 신기술로 꼽힌다.

(주)디오 관계자는 “부산에서 처음 개최한 IADDM과 DIM은 학술적 성과 못지않게 국가 이미지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회였다”면서 “디오가 디지털 치의학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강소기업으로 꼽히는 (주)디오는 주식시장에서도 ‘황제주’로 각광을 받는다는데, 김진철 동문은 “오는 2025년까지 신기술의 목표치를 완벽하게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영도지점 팀장 이문영 (32회) 010-3592-3722



동창회원 총명부 수록용 사진을 구합니다

회원 총명부에 수록 될 ‘사진으로 보는 75년사’에 담길 사진 (학창시절 교정에서 찍은 사진, 소풍, 마라톤 대회, 기타 행사 사진, 모교전경, 성적표, 월사금 납입장, 표창장, 교복, 모표, 운동복, 교련복, 풍구두 등 그때그 시절 추억의 실물 사진)을 수집 중이므로 휴대폰 문자 메일(010-5555-0879), E-mail(yongma2007@hanmail.net)로 보내 주십시오. (기수, 성명, 사진 설명도 첨부)

▶ 다시 살펴본 한대수 동문의 아픈 가족사

한대수 동문 다시 미국行 “환갑에 얻은 딸 위해”

14집 앨범 내고, 어둡고 불편한 가족사의 현장 뉴욕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말이죠.”

신아홉살에 얻은 귀한 딸 양호를 위해 떠난다고 했지만, “어디 그뿐이겠느냐”는 말들이 무성하다. 지난 12년 동안 그는 전쟁과 테러, 경제난의 고통, 통치자의 덕목 등 요즘 가수들은 외면하는 걸끄러운 영역을 부단하게 건드렸다. 또한, 그의 빈번한 미국행에는 비현실적이며 찢어지게 아픈 가족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거니와, 어둡고 불편한 기억의 뉴욕을 다시 선택한 그의 뒷모습이 웬지 스산하기만 하다.

사랑과 평화를 갈망하는, 살아 있는 ‘꼭꼭의 진실’ 한대수(20회) 동문이 다시 이삿짐을 싸다. 지난 2004년 몽골계 러시아인 아내 옥사나 알페로바와 모국에 정착한 지 12년 만에 다시 뉴욕행을 결행했다. 국내 무대에서 그를 다시 볼 수 있을지는 당분간 불투명하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간 게 남일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예요. 경남중 3년 마치고, 경고 1학년 때 또 미국에 갔죠. 저는 미국에서 자라면서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음악을 듣고 자유롭게 사고하며 컸죠. 지금 딸아이 또래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초등학교생들은 무조건 많

향토 명문의 장손, 아버지 실종으로 파란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 바이지만, 그는 부산지역의 명문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다.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직후의 부산 역사를 쓰는데 그의 집안 어른들을 빼놓을 수 없다. 할아버지 한영교 박사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언더우드 박사와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학장과 신학대학원장을 지냈다. 한대수 동문은 아버지가 유학을 떠난 유아기 때부터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

한영교 선생의 형제들, 곧 그의 종조부들 또한 선각자들이었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한홍교 선생은 부산 최초의 양의(洋醫)인데, 그가 이름을 지은 부산대동병원의 박경환 병원장은 그의 외손자이다. 부산



최초의 고아원인 ‘에린원’을 설립한 고아의 아버지 한정교 선생도 한 동문의 종조부이다.

광복군 선전대장으로

광복군가와 조국행진곡을 작곡했으며, 해방 후 한국 최초의 오페라 <아리랑>을 작곡한 면구름 한형석 선생이 한정교 선생의 아들, 곧 한대수 동문의 당숙이다.

이렇듯 ‘화려한’ 면면의 가족사가 그의 아버지 한창석 박사에 이르면 온통 먹구름 범벅이다. 수재 중의 수재로 꼽힌 아버지는 서울대 공대 1학년 때, 생후 백일쯤 되는 아들과 부자집 딸이며 피아니스트인 아내를 두고 미국 코넬대로 유학을 떠났다.

그런데,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텔러 박사가 선발한, 촉망받는 핵물리학자였던 아버지는, 유학 7년 뒤에 종적도 없이 실종되었다. 미국 FBI가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한창석 박사를 찾았다고 알려진 것은 10년이 지난, 그가 경고 1학년 때였다. 아이가 9명이나 딸린 백인 여인과 살고

있던 아버지는 가족들은 알아보았지만, 우리말은 강그리 잊은 상태. 2009년 타계할 때까지 실종 10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미스터리는 계속되었다. 한대수 동문은 핵무기 개발 기술을 한국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브레인 워싱’, 곧 누군가가 특정 기억을 지웠다고 믿는다.

뉴욕 첫 과업은 사진집 ‘한대수 필름’

지난해 데뷔 40주년 기념음반을 낸 그는 지난 7월, 10년 만에 정규 앨범 14집 <CREME DE LA CREME>을 내놓았다. 이번 앨범 작업에는 아코디언 명인 심성락(10회) 동문도 가세했다. “일흔살이 다 되어 앨범 내는 가수는 별로 없다”면서도 “뮤지션은 저 세상 가만남은 것은 앨범뿐”이라며, 늘상 해온 ‘마지막 앨범’ 타령은 빠뜨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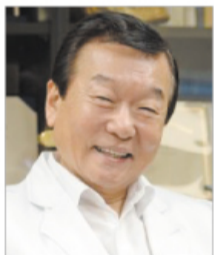
그는 뉴욕에서 우선 사진집 작업을 할 작정이다. 뉴욕의 히피, 유산독재 시절의 스케치 등 수십만 장을 정리해 ‘한대수 필름’으로 내놓겠다는 것. 뉴햄프셔대 수의학과에 입학했다가 자퇴한 그는 뉴욕 사진전문학교를 나온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기장에 짓는 가마골소극장이 완공되면 모시고 와서 선후배들과 사나흘이고 집편하게 판을 벌여 보려 했는데, 떠나셨다니 진짜 아쉽다. 기회가 된다면 꼭 모시고 싶다.”

문화계필라 이운택(25회) 동문의 말이다.

서울대 재직 동문 3인 정년퇴임

정희원(23회) 변창구(24회) 양봉민(24회)



정희원(23회)



변창구(24회)



양봉민(24회)

뇌종양 수술의 권위자인 신경외과 명의 정희원 동문, 세익스피어를 포함한 영미희곡의 최고 전문가 변창구 동문,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정착시키고 보건경제학을 도입, 보건의료 공공성의 토대를 닦은 양봉민 동문.

서울대에 재직하면서 저마다의 영역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냈던 석학 동문 3인이 나란히 정년을 맞았다. 서울대는 8월31일 관악캠퍼스에서 17명의 정년교수들의 퇴임식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병원장을 역임한 정희원 동문은 뇌종양전문클리닉을 개설하고, 뇌 두개저 접근법, 각성 뇌종양 제거술 등 고난도 뇌수술법을 정착시키면서 합병증은 최소화하고 완치율은 최대화했다.

변창구 동문은 인문대학장, 교무처장을 거쳐 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세익스피어:시대, 삶, 그리고 작품세계>를

비슷한 다수의 세익스피어 관련 저서와 해설서, 번역서를 펴냈다. 한국세익스피어학회와 현대영미드라마학회 회장을 지냈다.

양봉민 동문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다 1993년 보건대학원 교수로 부임해 보건대학원장을 역임했다. 국내에 보건경제학을 도입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서 경실련과 전경련,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 등 진영에 매이지 않고 활발한 자문활동을 벌였다.

정년교수를 대표해 퇴임인사를 한 변창구 동문은 “세익스피어는 이 세상을 무대요, 인간은 연극이라는 인생 속에 배역을 소화하는 배우라고 말했다”면서 “이제 자유인이 된 저는, 인생의 감독으로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본을 쓰고 새로운 주인공이 되어 가장 멋지고 행복한 연기를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NEWS 동문동정

배무삼(19회) 무형문화재 특별전

전통 동래연 제작 기법으로 부산시 무형문화재 21호 지연장(紙鳶)에 지정된 배무삼 동문이 노익장을 과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 동문은 지난 9월3일, 부산 중구 신창동 부산은행갤러리에서 열린 제5회 부산전승공예전에 최근 작품을 전시했다. 전승공예보존회가 마련한 전시회에는 명장-명인 17명의 작품이 선을 보였다.

배 동문은 지난 5월3일부터 한달간, 가장군 정관박물관이 8명의 작품으로 기획한 ‘혼으로 이어온 맥’ 무형문화재 특별전에도 참여했다. 특히 그는 전통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어린이들은 물론 가족들이 모두 동참하는 제작 강습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최동완(21회) 서도대전 오채상

서예가 최동완 동문이 제22회 대한민국서도대전에서 오채상을 수상했다. 각기 다른 다섯 서체의 작품으로 심사하는 오채상은



대상(문화관광부 장관상) 다음 등급의 입상이다.

지난해 삼채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 오채상을 수상함으로써 최동문은 서도대전 초대작가 반열에 올랐다. 입상작은 7월30일부터 나흘간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경남 통영 출신인 최 동문은 경고 1학년 때부터 친구 부친에게 서예를 배웠다. 귀향하는 방학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익혔다는 것. 그는 “50여년에 걸쳐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깊다. 고인이 되신 스승님께 오채상을 바친다”고 말했다.

고회를 맞는 내년에 개인전을 열고 싶은 욕심이 없지는 않으나, “사정이 허락할지 모르겠다”면서 “전시장을 찾아 축하해준 선후배님과 동기들에게 거듭 감사 드린다”고 했다.

최영길(23회) 부산항운병원장 취임

지난 8월, 인제대부산백병원을 정년퇴임한 최영길 외과 주임교수가 9월1일 부산항운병원장에 취임했다. 항운병원은 부산에서는 유일한 보건복지부 지정 대장항문 전문병원이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최 동문은 일본 규슈대에서 간담도 회장직을 집중 연구한, 이 분야 수술의 국내 권위자이다. 1983년 인제대 교수로 부임해 간담도회장클리닉을

개설, 간 절제수술 1100여 회(사망률 1% 미만), 횡장 십이지장 절제수술 500여 회(사망률 3% 미만)를 실시했다.

특히 1992년, 부산 경남지역에서는 최초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해 주목을 끌었다. 지금까지 5300여 회나 실시했는데, 사망률은 제로이다. 학문적 열정도 대단해서 학술논문 104편을 발표하는 등, 지역의료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효구(24회) 은탑산업훈장 수훈



LIG넥스원 부회장 이효구 동문이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효구 동문은 지난 9월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거행된 제40회 국가생산업대회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한 이효구 동문은 9월 27일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수여하는 방산기술상도 수상했다. 방산학회는 이 동문이 2007년 취임 후 과감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해 세계 수준의 무기체계를 개발, 생산하여 방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효구 동문은 "최첨단 국산 무기 개발을 통해 자주국방에 기여하는 방산업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LIG넥스원은 방산업체 최초로 한국신뢰성대상을 수상했다. 이 동문은 "무기체계 신뢰성 확보가 방산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석정(25회) 동아대 총장 취임



한석정 동문이 지난 8월 1일 제15대 동아대학교 총장에 취임했다.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동아학술 정취위(14회) 이사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과 김두관, 최인호 의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 특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인국 전 UN대사, 송정규 전 조선사회 회장 등 25회 동기들이 대거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한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육중심대학과 동아문화 창달이라는 두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해 명문사학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문학과를 나와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학자이면서 만주 근대사를 연구한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며 "융합은 구호가 아니라, 삶과 학문의 역정 자체였다"면서 융합적 학사운영 방침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석정 동문은 서울대 국문학과를 나와 미국 볼스테이트대에서 사회학 석사, 미국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1983년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돼 사회과학대 학장, 교무처장, 부총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고, 만주학회를 창설해 근대 만주학 연구영역을 개척했다.

이윤택(25회) 연희단거리패 30주년

문화계필라 이윤택 동문이 이끄는 극단 '연희단거리패'가 창단 30주년 기념 공연을 가졌다. 지난 1986년 7월 17일, 부산 중구 광

이성득 동문, '편파해설' 중계 2500회 돌파



야구중계에서 "대쓰요!"라고 하면 두 사람의 해설위원이 등장한다. 한 사람은 MBC 해설위원 허구연(24회) 동문이고, 다른 한 사람은 KNN 해설위원 이성득(27회) 동문. 두 동문은 고려대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허 동문의 '대쓰요'는 베이징올림픽 일본과의 경기에서 '폭발'해 화제가 됐

지만, 이성득 동문의 '대쓰요'는 롯데 경기에서 빠지는 일이 드물다. 두 경우 모두 '편파해설'의 부산물이되, 사실상 '공인된' 편파해설의 주인공이자 달인은 이성득 동문이다.

지난 1998년 KNN 창사 첫해부터 라디오 해설을 시작한 이 동문의 편파해설이 지난 7월 14일, 포항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삼성과의 경기로 2500회를 기록했다. 헛수로 19년, 부친상과 장인상을 치르면서도, 경기가 시작되면 예정된 방송 때문에 어김없이 마이크를 잡았던 대기록이다.

고교 시절 5할대 타격왕으로 명성을 들날렸던 이성득 동문은 롯데야구의 산증인이다. 비록 롯데 입단 1년도 못돼 무릎 부상 악화로 선수생활을 접었지만, 프런트, 코치, 매니저로 일했던 그는 언제나 롯데의 '대쓰요'로 있어야 했다. 지난 2001년부터 7년 동

안 롯데가 최하위권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때, 그는 위장약을 달고 살았다. "롯데가 잘해야 해설도 잘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롯데는 답례로 감사패와 함께 시구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1000경기, 1500경기, 2000경기에 이어 네 번째. 롯데 경기에서 시구를 네 번이나 한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했다. 또 선수단 전원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도 선물했다.

그의 목표는 한국의 빈 스컬리이다. 올해 여든아홉살인 스컬리는 67년간이나 LA 다저스 해설을 맡아오고 있다. 체력관리도 게을리할 수 없다. 다만, 중계 일정이 워낙 빽빽해 모교 야구부 후배들을 살펴볼 겨를이 없다며 미안해 했다.



복동 응두산공원 입구 한 건물 지하 공간 '가마골 소극장'과 함께 출범한 이 극단은 이 동문이 예술감독으로 운영해 왔다. 기념공연 <과출소 난 입사건>을 끝내고 무대

에 오른 이 동문은 "오는 11월 하순이면 가마골소극장이 기장군 일광면 신축 건물로 옮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체제로 운영된다"면서 기장시대의 개막은 자신과 연희단거리패의 '완전한 귀향'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동문의 오랜 소망이던 자가전용극장이 자리잡을 기장의 신축 건물에는 지역 문화에 숍인들이 누렸던 부산 원도심 낭만과 추억을 되살릴 주점 '양산방'과 클래식 음악다방 '오아시스'도 들어서게 돼 진작부터 부산 문화계 '올드 보이'들의 기대를 모아왔다.

또한, 이 동문은 네 번째 시집 <숲으로 간다>도 펴냈다. <밥의 사랑> <시민> <좁은 이야기>에 이어 20년 만에 나온 시집이다. 시집을 기획한 현대서정사 편집인 신진 전 동아대 교수는 "자연생태와 관련한 기획총서를 계획하며 이윤택 시인을 첫 주자로 내놓았다. 그는 자연과 인간 사이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무(26회) 경성대 객원교수



교육계 정책 및 실무 요직을 두루 거친 '40년 교육 전문가' 이승무 동문이 경성대 객원교수로 올해 2학기부터 출강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승무 동문은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과장,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행정관, 교육정보화국장, 교육정책기획관, 공보관 등 요직을 역임했다. 서울대와 충북대 사무국장직도 거쳤다.

퇴임 후에도 한국지도자육성재단 이사장과 진명여고 교장 등을 맡아 교육현장을 지켰다. 재경동창회 <오마> 편집위원으로 동창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최영식(30회) 국과수 원장 취임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시절, 가수 신해철 씨 사인 규명 부검으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던 최영식 동문이 제3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취임했다.

9월 21일에 열린 취임식에서 최 동문은 "기쁨과 영예보다 국과수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앞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겸손한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현장중심으로 협력하는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동문은 "과학수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국민이 자랑하고 세계인이 선망하는 선진 국과수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5급 특채로 국과수에 입문한 최 동문은 미국 FBI와 플로리다주 법무부 등에서 전지훈련을 수료했는데, 국과수 법의학 과장과 부장을 거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제13대 대한법의학회 회장도 지냈다.

한형조(31회) 한중연 장서각 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철학 교수 한형조 동문이 연구원 장서각 관장에 보임되었다.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한 동문은 이 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 관장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더하는 문화국가로 크게 발전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연 장서각은 <동의보감> <조선왕조 의궤> 등 세계기록유산을 포함해 국가 지정 문화재급 전적들을 소장하고 전통문화 전반을 탐구하는 최고 연구기관이다.

양한광(32회) 서울대병원 외과 과장

위암 수술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양한광 동문이 서울대병원 외과 과장에



보임되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은 양 동문은 그동안 위암센터장을 맡아 왔다.

한편, 양 동문은 지난 4월, 미국의과학회와 유럽의과학회의 명예회원으로 위촉되는 영예를 누리며 한국의료계의 위상을 격상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유럽의과학회는 지난 4월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린 연례 학술대회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양 동문에게 명예회원 증서를 수여하고, 양 교수의 특별강연을 들었다. 또한 미국외과학회도 학술대회 겸 총회에서 양 동문에게 명예회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미국외과학회 명예회원은 세계 모든 외과 전문의들에게 각별하고 영예로운 선망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양대 학회가 특정인을 동시에 명예회원으로 위촉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한다.

양한광 동문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한국 의료계, 특히 위암 분야의 경쟁력을 세계 의학계가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해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한광 동문이 보유하고 있는 위암 수술 후 평균 합병증 12.4%와 사망률 0.5%는 세계 최고수준의 성적으로 평가된다.

하근철(34회) 한은 본부 국장 전보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하근철 동문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본부 커뮤니케이션국장으로 보임되었다. 한국은행 당국은 이번 인사에서 "국실장 자리에는 젊고 유능한 직원들을 전진 배치했으며 현업과 경영관리 분야의 직원들을 다수 포함시켰다"고 밝혔는데, 26명의 본부 국실장 가운데 16명이 교체되었다.

하 동문은 부산대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한국은행에 들어가 국제국 부국장과 외환

업무부장을 거쳐 제주본부장으로 일했다.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은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과 외부 의견 수렴 업무를 비롯하여 지식경영 및 지식관리 시스템 등을 기획하며, 경제교실과 박물관 운영 업무와 국내외 협력 업무도 맡고 있다.

주원석(51회) 산업자원부 서기관

주원석 동문이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4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주 동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해 왔다.

지난 6월24일자 인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주 동문은 시스템산업정책관실 기계로봇과 근무로 보임되었다. 기계로봇과는 일반 기계산업의 육성과 진흥업무를 포함해 미래전략 부문으로 꼽히는 로봇산업의 육성, 진흥업무를 관장한다. 특히 민간과 군사 분야에서 겸용되는 기술과 산업을 활성화하는 업무도 병행하는 전략 부서이다.

이상은(52회) 산업자원부 서기관

전도가 촉망되는 이상은 동문이 서기관으로 승진, 관료로서 탄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에 근무하는 이상은 동문은 인천대 동북아통상학과 4년을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장학생으로 졸업했다. 제4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06년

산자부로 진출한 이 동문이 2010년부터 4년간 주중국 대사관의 상무관보로 파견 근무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학부 전공이 큰 힘이 되었다. 중국과의 통상외교에 세운 공로로 2013년에 외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이 동문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제1회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공무원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무원상은 시행 첫 해에는 74개 국가 및 지방기관에서 추천한 6백여 명 가운데 8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자부 시스템지원정책관실 자동차항공과는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 시스템 전반의 육성 진흥 정책과 항공우주산업 육성 정책, 부품산업의 여타 산업과의 융합 정책을 맡고 있다.

이우환 화백, 시립미술관에 신작 기증

위작 시비 항의 “당분간 한국에 오지 않으려다”



이우환 동문은 어린이들이 환호할 작품을 선물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최근작을 부산시립미술관에 기증했다.

세계적인 거장 이우환(10회) 화백이 9월3일, 2016년 신작을 공개했다. 이날 오후 부산시립미술관 조각공원에서 제막한 신작 '관계항-안과 밖의 공간은 이우환 공간'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미술관에 기증한 작품이다. 행사에는 서병수(25회) 부산시장을 비롯해 150여명의 국내외 미술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작은 폭 6m 높이 2.3m의 비스듬한 호를 그리는 스테인리스 강판이 양쪽에서 마주보고, 두 호 사이에 높이 2m의 자연석을 설치한 작품이다. 작품 앞에 다가서면 반짝이는 스틸 판에 비춰지게 되는데, 관람자는 판과의 거리에 따라 자신의 모습이 상하좌우로 변하는 상호작용을 체험할 수 있다.

이우환 동문은 제막식 인사말에서 “보통

조각은 대상만 보지만, 제 작품은 조각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면서 “이 조각이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주변의 긴장이나 공간의 울림이 콘셉트”라고 설명했다. 이 화백은 지난 4월, 부산 어린이들이 “와!” 하고 감동할 작품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우환 동문은 작품 위작 시비와 관련해 “국가권력과 언론이 합세해 한 작가를 잡아먹으려 한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그는 화랑가에 나온 자신의 작품가운데 위작이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경찰이 제시한 작품 가운데는 위작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가능한 한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며 부아가 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부산 일정을 마치고 그는 프랑스로 떠났다.

부산시 수협 중매인23번

대 풍 견 해

대표 조성근 (31회)
010-3835-5307

주소 부산시 중구 남포동 1가 60-1
전화 : 051-245-5307
팩스 : 051-241-6587

60年 傳統을 자랑하는
견해산물 전문업체
(멸치, 김)

“정부가 키운 세계적 대참사”

안종주 동문, 가슴기 살균제 보고서 <빼앗긴 숨> 펴내

“숨을 쉬는 건 생명의 기본이잖아요. 그 숨을 누가 빼앗아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지요.”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한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 사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일컬어지는 가슴기 살균제가 급기야 치약으로까지 번지면서 공포의 끝을 예단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인 안종주(29회) 동문의 여덟 번째 저술 <빼앗긴 숨>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구석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유사한 환경 비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안을 제시한다.

가슴기 살균제가 최초로 개발, 판매된 1994년 이래 22년 만에 국회 국정조사 특위까지 구성됐지만,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는 이 대재앙은, 진상규명

도, 피해구제도, 재발방지책도, 어느 것 하나 명료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치약으로, 화장품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2008년 한 소아과 의사가 질병관리본부에 발병 사실을 알렸을 때부터 추적한 안종주 동문의 <빼앗긴 숨>은 해당 기업과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언론의 오류까지 ‘고해’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특히 <빼앗긴 숨>에는 그동안 언론이 보도한 ‘슬픈 사례’가 아닌, 어린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슬픔을 견디며 끝 모를 싸움에 뛰어난 민초들의 이야기도 담아내 독자들의 공감을 배가시킨다. 4천명이 넘는 피해자들만의 재앙이 아니며, 또 다른 참사가 우리들을 덮칠지 모른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안종주 동문은 1983년 서울신문 기자로 출발해 2004년까지 한겨레신문에서 사회부장, 보건복지담당 대기사로 활동했다. 1988년 원진레이온 이항화탄소 중독사건을 취재했으며, 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으로 석면피해의 실태를 고발하

뱃디펠롱 샴푸 써 보셨나요?

천연 유기농 뷰티 브랜드 잇발 세운 구형우 동문

무엇업계에서 실력을 발휘한 구형우(50회) 동문이 제주도 토종 발효법을 가지고 뷰티 제품 시장에 진출했다. ‘뱃디펠롱’, ‘햇볕 반짝’이라는 뜻의 제주 방언을 브랜드로 문칭한 샴푸와 바디 워시 제품을 주력으로 내놓았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인 청정 제주를 대표하는, 믿을 수 있는 100% 천연 뷰티 전문 브랜드로서 제주만의 브랜드 가치와 스토리를 살려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로 나아가겠습니다.”

뱃디펠롱의 노하우와 경쟁력은 제주에서 15년 넘게 천연 유기농 바이오 공학에 몰두해온 효소 장인들의 독자적인 발효 효소에서 나온다. 유기농 감귤을 주원료로 해서 한라산 청정수, 녹차, 유채 오일, 다시마, 감태 등을 제주 토종통에서 추출한 바실러스균과 5개월쯤 발효, 숙성한 원액으로 자연친화적 국산 천연 뷰티 제품을 만든다는 것.

구형우 동문은 미국 수출 관계로 2011년부터 거래한 서귀포시 토평공단의 (주)효소이야기에 지분 40%를 투자하고 판매업체인 (주)네이트라코코를 지난해 설립했다. 국내시장 점유율이 4%밖에 되지 않는 자연친화적 뷰티 제품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진단하는 구형우는 서울 강남 압구정, 청담 일대의 주요 뷰티 헤어 살롱을 중심으로 팝업 마케팅 활동을 벌여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제품 출시 첫해부터 국내 유명 브랜드와 함께 해외 이벤트에 참가했다. 뱃디펠롱은 지난 9월22일 태국 방콕에서 개막된 K-뷰티 엑스포 방콕에 참가해 아세안 10개국 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벌였다.

“최근 홈쇼핑에서도 천연효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약까지 걱정하게 하는 가슴기 살균제 영향도 있겠지요?”라고 은근히 시장의 판도 변화를 내다보는 구형우 동문은 “뱃디펠롱 제품은 남녀노소 공용”이라며 용마가족들의 성원을 부탁했다.



장밋빛 미래를 내다보았다

제2회 독서토론대회를 마치고



독서토론대회는 경고인들의 명석함을 드러내기엔 부족함이 없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 글은 모교 독서토론대회를 주관하고 진행한 조순미 선생이 기고한 글이다. 기고문에서 엿볼 수 있듯이, 토론대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울림을 남기고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 듯, 다음 대회부터는 선배들의 참관도 필요해 보인다. 2학년 7반 담임교사인 조순미 선생은 국어를 담당하고 있다.

<편집자 주>

2016년 9월21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던 그때, 경고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 바로 독서토론대회를 준비하는 소리였다. 올해로 2회를 맞은 독서토론대회는 경고인들의 명석함을 드러내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독서토론대회는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멋진 기회의 장이다. 토론을 통해 참여와 연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Public Forum Debate' 방식을 택한 이번 대회는 입안, 교차 질의, 반박, 교차 질의, 요약, 전원 교차 질의, 마지막 초점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생각이 곧 우리의 미래이다"라는 각오로 토론에 임하는 경고인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났다.

예선을 거쳐 2학년 세 팀과 1학년 한 팀이 4강전에서 맞

붙었다.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팀 왈도' (2학년 김민우, 김용민), 재기발랄함이 돋보이는 '김침지' (2학년 고관호, 류건석), 문과의 귀염둥이 '뽕송뽕송해' (2학년 손보성, 김태운), 작은 고추가 맵다! '운조' (1학년 한창, 김경훈).

최종 결전은 '김침지'와 '팀 왈도'의 한판이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 강한 인공지능의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입론과 반론 그리고 교차 질의가 이루어지는 매 순간, 청중은 물론이고 심사위원들도 숨죽여 지켜봤다.

순위를 매기는 것이 무색할 만큼 멋진 토론이었고,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하였다. 날카로운 시선, 논리적 이성, 열정적이지만 침착한 태도는 고교생의 토론 그 이상이었다. 특히, '김침지'의 마지막 초점은 방청하는 학생과 교사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인류는 최초로 불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다른 종과 구분된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처럼 불을 두려워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명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강한 인공지능 역시 인간이 슬기롭게 이용해야 할 대상이지 막연하게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제껏 역사는 진보한 사람의 편이었다."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경고인의 모습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발언이었다.

3, 4위전은 '뽕송뽕송해'와 '운조'의 '악한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간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로 진행되었다. 2학년과 1학년의 대결이었던 만큼 결승전 못지않은 긴장감과 박진감이 감돌았다. 선배로서의 노련함과 후배로서의 패기가 격돌한 광경은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아내게 하기도 하였다.

독서토론대회는 대성공이었다. 경고인들에게서 장밋빛 미래를 내다보았다. 그들은 토론대회뿐만 아니라 교내외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세상이 자라듯 성장하고 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그들이 만들어갈 경남고와 우리 사회의 모습이 기대된다.

과학탐구에도 두각

골드버그 금상 등 탐구대회 입상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각종 과학탐구대회에서 모교가 자사고와 과학고에 뒤지지 않는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교 당국에 따르면, 2학년 권형준, 박선경, 양영혁, 차현영 군은 지난 7월16일 2016년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골드버그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골드버그부문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구조나 장치를 단계별로 고안하여 연속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계 장치(골드버그 장치)를 구상하고 제작하게 함으로써 창의력, 집중력,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고 협동심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는 경연대회이다.

모교 '금메달리스트' 팀은 10개교 대표팀이 진출한 본선에서 자사고와 과학고를 누르고 당당하게 대상을 거머쥐었다. 권형준, 박선경, 양영혁 군은 모교 합창반원으로 지난 9월 서울올림픽장단 정기공연에도 참가했다.

2학년 고관호, 김용민, 류건석 군은 지난 6월11일 제34회 부산청소년과학탐구토론대회에 출전해 동상을 차지했다. 모교팀은 휴대폰에서 폐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에 노출되는 문제에 주목하여 보호장비 개발 방안을 탐구하여 12개교가 경합한 본선에 진출, 동상을 수상했다.

또한, 2학년 김성현과 이준성 군은 지난 6월25일 제24회 부산학생과학탐구올림픽에 참가해, 36개 팀이 겨룬 본선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28일에 개최된 수학과과학경시대회에 참가한 3학년 김유성 군은 물리부문에서 동상을 차지했고, 3학년 김일섭 군은 생명과학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과학탐구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2학년 고관호, 김용민, 류건석, 이준성 군도 합창반원들이다.

동창회보 구독은

모교와 동창회를 도우는 일입니다.

서기혁, 바둑대회 준우승



경중 바둑부 서기혁(3학년) 군이 전국학생 바둑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대한바둑협회와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해 지난 7월23, 24일 양일간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530여명이 참가했다.

중학생부에 출전한 서기혁 군은 예선과 본선 토너먼트를 거쳐 결

승에 올라 침단중 이도현 군과 대국을 벌였으나 아깝게 패해 준우승배를 받았다.

2016년도 회비 납부 현황

- 회장 이병찬 3,000만원
 - 자문위원 송규정(16, 김길제(18, 조성재(18, 남진현(19, 2015년), 박용덕(20), 임경범(21) 이상 100만원
 - 부회장 박종찬(25), 박상호(26), 박성철(29), 박창언(29), 김현태(30), 류명석(31), 박명진(33), 이양결(41) 이상 200만원
 - 최우철(30), 남기태(31), 박종호(31), 손영태(31), 이동근(33), 이진호(34), 장인화(35), 정윤성(35, 2015년), 유호섭(37), 김경태(38, 2015년), 윤경만(38), 박인석(39), 우형철(39), 우영환(40), 윤종진(41), 박종현(50) 이상 100만원
 - 본부 분담금 낸 기수 : 18회, 20회, 23회, 24회, 25회, 27회, 29회, 30회, 31회, 33회, 34회, 37회, 39회, 40회, 41회, 43회 (2015년 - 36회, 38회)
 - 야구후원금 낸 기수 : 18회, 20회, 23회, 24회, 25회, 27회, 29회, 30회, 31회, 33회, 34회, 37회, 39회, 40회, 41회, 43회 (2015년 - 36회, 38회)
 - 사하지역동창회 특별회비 100만원
 - 동창회 발전기금 (총명부 발행회사) 1,000만원
 - 50회 동기회 흠커밍 특별회비 100만원
- 총 40명 (합계 7,700만원)



법무인

포인



| 업무분야 |

- ▶ **일반송무**
민사, 형사, 행정·조세, 의료, 지적재산권, 가사
- ▶ **기업법무**
기업법무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인사·노무, 세무, 회사정리, 파산·화의, 기업인수, 합병·구조조정
- ▶ **행정, 조세**
행정소송, 조세소송
- ▶ **건설,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관련업무, 건설분쟁 관련 업무, 부동산 관련업무
- ▶ **해상, 보험**
보험, 해상
- ▶ **서면검토제도**
법률문제 서면 검토, 진단 서비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13층
 TEL : 051-911-6161~8
 FAX : 051-911-3334~5,1335
 e-mail : help@jilaw.kr

대표변호사 강 현 안 (28회)
 대표변호사 박 성 철 (29회)
 변호사 이 학 수 (30회)